

‘켜다’의 통시적 변화

최 성 규*

I. 서론

국어의 동사 ‘켜다’는 ‘당기다(引)’를 기본 의미로 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이다. 중세국어에서 ‘히려-’ 또는 ‘혀-’로 나타났던 이 동사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채 강세접미사로도 활발히 쓰였으며,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동사 ‘켜다’는 음운론 및 형태론 방면에서 흥미로운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음운면에서는 음소 ‘ㄹ’의 존재 및 방언 분화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형태면에서는 여러 파생어 및 강세동사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접미사 ‘-켜/키-’가 결합된 일부 동사 중에는 사동(使動)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어, 강세접미사가 사동접미사로 전이되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난다.

이 글은 동사 ‘켜다’ 및 강세접미사 ‘-켜/키-’와 관련된 어형을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모아 정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된 여러 형태를 통틀어 가리킬 경우, 편의상 동사는 ‘켜-’, 접미사는 ‘-혀-’ 형태를 대표로 표기하나, 역사자료를 주로 다루는 단락에서는 ‘히려-’ 등으로도 표기하겠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II. 기존의 연구 및 이 글의 논의 방향

중세국어의 동사 ‘𪛗-’는 음운론 면에서 중세국어 ‘ㅎ’을 보여주는 유일한 어휘형태소이다. 중세국어 ‘ㅎ’의 실체와 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뚜렷하지 않다. 허웅(1985:369)에서는 [ç]로 설명하였으며, 이기문(1987:49~50)에서는 ‘ㅎ’을 ‘ㅎ’의 된소리로 보았다. 두 의견 모두 이를 ‘ㅎ’과는 다른 음운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차재은(2003)에서는 ‘ㅎ’을 ‘ㅎ’의 이음으로 간주하고, 그 음가는 된소리가 아닌 [ç]로 추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켜다’의 방언 분화형을 검토하며, 중세국어 ‘ㅎ’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강세접미사 ‘-𪛗-’는 원래 동사 ‘𪛗-’가 문법화를 겪어 생성된 것이다. 때로 이 형태는 동사 ‘𪛗-’ 본래의 어휘적 의미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예가 있어서, 이를 동사로 처리할지, 접미사로 처리할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¹⁾ 예컨대 ‘드리𪛗-(吸)’의 경우, ‘吸’과 ‘引’이 의미상 겹치는 바가 있어 ‘𪛗-’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동사인지, 문법적 기능만 지닌 접미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문법화를 겪은 형태에서, 문법화 이전의 특성이 이따금 남아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이 글에서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더라도 가능한 한 어느 한 쪽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𪛗-’가 결합된 복합어(합성어 및 파생어)의 경우, 고유의 의미 ‘당기다(引)’가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사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다만, 동사로도 해석 가능할 경우 이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물론 이 글은 강세접미사 ‘-𪛗-’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동사로 쓰인 ‘𪛗-’도 함께 다룬다. 따라서 합성어를 형성한 ‘𪛗-’도 이 글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글은 ‘켜다’의 통시적 변화를 두루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

1)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래에는 강세접미사를 보조용언으로 파악하는 논의도 있다(이병기, 2008).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강세접미사 또는 동사 둘 중 하나로만 파악하기로 한다.

므로, 현대국어의 동사 ‘켜-’ 및 그 관련 형태 역시 논의에 포함된다. 현대국어의 복합어 안에서는 이들이 주로 ‘-켜-’ 또는 ‘-키-’ 형태로 나타나나, 형태 분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들이 현대국어에서 공식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Ⅲ. ‘켜다’의 음운론: 중세국어 음운 ‘ᄃᆞ’의 현대 방언분화형

현대국어 ‘켜다’는 중세국어에서 ‘ᄃᆞ-’ 또는 ‘ᄃᆞ-’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ᄃᆞ-’는 각자병서 폐지(1465년) 후 나타난 표기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 시기에도 이미 ‘ᄃᆞ-’로 표기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ᄃᆞ’는 17세기 초에 ‘ᄃᆞ’로 표기되며 흔적을 남겼으나, 이내 곧 ‘ㄱ’으로 합류하였다. 물론 ‘ᄃᆞ’는 이미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도 기능 부담량이 적었다. 동사 ‘ᄃᆞ-’와 그 결합형, 또는 ‘ᄃᆞᄃᆞ’와 같은 일부 부사에 쓰인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ᄃᆞ-’의 연구와 ‘ᄃᆞ’의 연구는 그 대상이 대부분 겹친다.

중세국어 ‘ᄃᆞ’의 현대 방언분화형은 크게 ‘ㄱ’계, ‘ㅅ’계 ‘ㅎ’계로 나뉜다. 현대 표준어로 채택된 것은 ‘ㄱ’계 형태인 ‘켜-’이나, 물이 물러난다는 뜻으로는 ‘ㅅ’계 형태인 ‘썩-’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²⁾ ‘ㄱ’계 형태는 한반도 중부를 비롯하여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이다. ‘ㅅ’계 형태는 경기, 강원, 황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타나며, ‘ㅎ’계 형태는 주로 서북(평안)방언에 나타난다.

아래에 여러 방언형을 정리하여 보인다. 남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에서, 북한 자료는 김병제(1980)에서 찾아 정리하였다.

2) 이는 남북 공통이다. 북한 『조선말 대사전』(2006년 증보판)의 ‘썩다’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썩다(썩니, 썩서) [동](자) ① (밀물이나 밀렸던 물이) 물러가다. | 그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은 밀렸다 썩는 물에 씻기였다. ② (고였던 물이) 새여서 줄어지다. | 큰 웅덩이물이 점차 썩니 바닥에는 잔고기들이 한데 뭉켜 우글거렸다.

‘켜다’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실린 경우, ‘불을 켜다[點火]’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인다.³⁾

(ㄱ) ‘ㄱ’계 형태

- 케- <경기> 용진, 양평, 화성, 용인, 여주, 평택, 광주, 남양주
 <강원> 화천, 홍천, 평창, 명주, 정선, 삼척, 인제, 고성, 영월, 양구, 춘성, 횡성, 원성 <북한 강원> 김화, 창도, 통천, 고성
 <충북> 음성, 괴산
 <충남> 아산, 천원, 예산, 부여
 <경남> 울주,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고성, 거제, 하동, 남해
 <함북> 웅기, 라진, 새별, 온성, 청진, 어랑, 경성, 명간, 명천, 길주
 <함남> 정평, 함주, 오로, <량강> 풍서 <자강> 량립 <북한 강원> 고산
 <평북> 운전, 정주, 선천, 태천 <자강> 강계
 <평남> 온천, 룡강, 문덕
 <황해> 곡산, 금천, 름산, 봉산, 서흥, 신계, 신평, 평산, 황주, 연탄, 은파
- 케우- <경남> 창녕
- 켜- <경기>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고양, 양주, 남양주, 가평, 양평, 화성, 평택, 안성, 김포
 <강원> 양구, 춘성, 원성
 <충북> 증원, 제원, 괴산
 <전남> 화순
 <경북> 봉화
- 키- <경기> 김포, 시흥, 화성, 이천
 <강원>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영월, 횡성 <북한 강원> 판교
 <충북> 음성, 진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남> 서산, 당진, 공주, 연기, 보령, 부여, 대덕, 논산, 청양, 서천
 <전북> 익산, 무주, 순창, 옥구, 진안,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임실, 고창

3) ‘기지개를 켜다’, ‘실을 켜다’ 등도 있으나, 이들 항목은 특정 방언집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남> 보성
 <경북> 영풍, 울진, 금릉, 선산, 군위, 성주, 칠곡, 달성, 영덕,
 문경, 의성, 영천, 고령
 <경남> 함양
 <함북> 은덕, 새별
 <함남> 북청, 덕성
 <황해> 벽성
 키우- <경남> 창녕, 밀양, 함안
 키-/켜-4) <경기> 용인, 여주

(ㄴ) ‘쓰’계 형태

싸- <제주> 남제주, 북제주
 써- <전북> 순창, 고창
 <전남> 담양, 광산, 진도, 고흥
 <함북> 회령, 어랑, 온성
 <함남> 신흥, 단천, 홍원, 정평, 함주, 오로 <북한 강원> 법동
 <황해> 벽성
 <북한 강원> 통천, 고성
 쉼-5) <평북> 녕변, 박천, 구장, 향산, 운전, 구성, 삭주, 동림, 철
 산, 꺾산, 태천
 <평남> 룡강, 남포, 녕원, 맹산
 쓰- <강원> 정선
 <충남> 당진, 예산, 홍성, 청양, 연기, 보령, 부여, 서천, 금산,
 대덕, 서산
 <전북> 완주, 진안, 김제, 장수, 고창, 옥구, 부안, 남원
 <전남> 광양, 영광, 장성, 곡성, 함평, 신안, 무안, 나주, 화순,
 승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여천, 완도
 <함남> 정평
 씨- <충북> 진천, 옥천, 영동, 보은
 <충남> 논산
 <전북> 옥구, 김제, 부안, 정읍, 임실,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의창, 통영
 쓰-/씨-6) <전북> 김제, 정읍, 임실

-
- 4) ‘키-’인지 ‘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예 ‘켜라’(키/켜+어라)]
 5) 김영배(1997:263)에는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헤-’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
 다. ‘췌-’는 김병제(1980)을 인용하여 기록하였다.
 6) ‘쓰-’인지 ‘씨-’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동남방언에서 모음 ㅜ가 쓰였거나,

<전남> 구례

<경북(s'ㄹ-)> 안동, 상주, 의성, 금릉, 선산, 달성

<경남(s'ㄹ-)> 거창, 합천, 창녕, 산청, 하동, 진양, 사천, 남해,
통영, 의창, 울주, 함양

스-/서-(s'ㄹ-) <경북> 영풍, 봉화, 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영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군위, 선산, 울진, 월성

시- <경북> 영풍, 선산

(ㄷ) 'ㅎ'계 형태

헤- <평북> 녕변, 구장, 향산, 동림, 철산, 룡천, 염주 <자강> 위원

<평남> 온천, 룡강

<황해> 황주, 연탄

혀- <경북> 봉화, 영덕, 칠곡

<평북> 구성 <자강> 희천

<북한 강원> 통천

서북 방언의 'ㅎ'계 형태는 'ㅎ>ㅎ'의 변화 결과로 나타났으며, 여러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ㅅ'계 형태는 'ㅎ>ㅅ'의 변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남방언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ㅅ'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동남방언(중 일부)에 'ㅅ'이 없는 것은 자음체계에 된소리 계열이 없었던 오래 전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변화 과정을 'ㅎ>ㅅ>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북 북부에서 드물게 '혀-'가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음운 변화를 'ㅎ>ㅎ>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ㅎ'의 자질이 문제이다. 'ㅎ'을 'ㅎ'의 된소리⁷⁾로 본다면, 된소리 발달이 늦었다던 동남 방언의 옛 음운체계에 된소리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동남방언에 나타나는 'ㅅ'의 선대형을 'ㅎ'으로 본다면, 'ㅎ'은 된소리가 아닌 다른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더 대담한 가설을 펼친다면, 동남방언에서는 아예 'ㅎ'이 존재하지

어미에 '어'가 있는 경우. ㉠ '씨야'(쓰/씨+어야)

7) 된소리는 보통 성문폐쇄음[ʔ]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출음[ʰ] 등 다른 견해도 있다.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동남방언에서는 애초부터 ‘*혓-’가 아니라 ‘혀-’였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중앙어 및 기타 방언권의 ‘혓’과 동남방언의 ‘혓’이 방언차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동남방언에서는 ‘혓>ㅅ’ 변화로 지금의 ‘ㅅ’계 형태가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형인 ‘혓’이 유지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어 또는 타 지역어의 영향으로 ‘ㅅ’계 형태가 나중에 생겼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중세국어 중앙어의 ‘혓’도 ‘혓’의 이음으로 보는 차재은(2003) 등의 견해를 따른다면, 된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남방언의 ‘ㅅ’은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ㄱ’과 ‘ㅅ’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어 여러 방언에 나타나는 ‘ㄱ’, ‘ㅅ’, ‘혓’계통 소리의 공통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혓’의 존재를 인정하고, ‘혓’과는 다른 별개의 음운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중세국어 ‘혓’은 ‘혓’과는 다른 별개의 음운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음가는 ‘혓’의 된소리가 아니라 다른 음운(예컨대 [ɕ])이었을 것이다. 단, 동남방언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혓’이 존재하지 않았을(독자적인 음운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세국어의 ‘혓-’와 관련된 형태로는 ‘썰물’도 있다. ‘썰물’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의 조사 항목에는 없으므로,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조사 자료는 오구라 신페이(2009), 김병제(1980), 김영배(1997), 황대화(2007)이다.

썰물 <평북> <평남>

썰물 <함북>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부령, 회령, 무산

<평남> 대동

썰물 <평남> 강서

썰물 <전남> 나주, 신안, 진도

썰물 <경남>

썰물 <제주>

썰물 <경북>

찹물 <평북>(전 지역) <평남>(대동, 강서 제외 전 지점)

날물 <황해> 룡연, 장연

자료가 자세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동사 ‘켜-’와 상황이 사
뭇 달리 나타난다. ‘ㄱ’계나 ‘ㅎ’계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ㅅ’계가
대부분이다. 같은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어원 의식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변화를 겪은 탓으로 보인다. ‘날물’과 ‘찹물’은 아예 다른 단어인
‘나-’, ‘찌-’로 대체된 형태이다. ‘찹물’은 남북 모두 방언으로 처리했
으나, 동사 ‘찌다’는 남북 모두 공식어로 사전에 실어놓았다.⁸⁾

김무림(2009)에는 ‘켜다’ 관련 어휘의 세기별 출현 양상을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혀다	○	○	○	○	○	
혠다	○	×	×	×	×	×
혡다	×	×	○	×	×	×
켜다	×	×	○	○	○	○
쓰다	×	×	×	○	×	×
키다	×	×	×	×	○	×
혈물	×	×	×	×	○	×
썰물	×	×	×	×	○	○

‘혈물’이 너무 늦게 나타나는 점이 다소 걸리기는 하지만,⁹⁾ 중앙

8) 이런 뜻으로 쓰인 ‘찌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찌다04 [찌어[-어/-여](찌[찌]), 찌니] ㉞ ① 들어온 밀물이 나가다. ②고
인 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다. 【<찌다<월곡>】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찌다2 [동] (자) (괴여있거나 들어온 물이) 줄어들거나 밀려나가 없어지다.
|| 늪의 물이 ~.

9) 김무림(2009)에서는 표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두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출현은 문헌 용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언어에
있어서의 어휘의 역사를 잘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썰물’의 옛 형태인 ‘혈물’은 19세기 문헌에 비로소 나타나지만, 15
세기의 『석보상절』 (21-16)에 ‘밀물[潮]’이란 말이 나타나므로, 중세국어
에 ‘*혈물’이나 ‘*헐물’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에서는 ‘ $\text{ㅎ} > \text{ㄱ}$ ’으로, 서북 방언에서는 ‘ $\text{ㅎ} > \text{ㅎ}$ ’으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 $\text{ㅎ} > \text{ㅅ}$ ’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로 남는 것은 동남방언의 형태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도 동남방언에 ‘ ㅎ ’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동남방언 형태에 이르는 통시적 변화 과정은 뚜렷하지 않다.

IV. 형태론

1.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의 ‘ 혀 ’ 복합동사 목록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에서 ‘ 혀 ’는 중세국어 시기 다양한 파생어에 널리 쓰이는 접사였다. 이현희(1997)에서는 중세 및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 혀 ’ 파생어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도혀다(收), 가동그리혀다(卷攣), 거두혀다(縮), 거후리혀다(傾), 걸위혀다(拘引), 곱흐리혀다(곱히리혀다, 고평리혀다, 曲), 그리혀다(刺, 畫), 그우리혀다(그우리혀다, 구으리혀다, 倒), 글희혀다(解, 開), 기리혀다(永), 기우리혀다(傾, 側, 偃), 내혀다(出, 生), 느르혀다(挽, 延), 느리혀다(挽, 延), 늘의혀다(挽, 延) 니르혀다(起), 니르혀다(起), 녀미혀다(니미혀다, 님의혀다, 斂, 掩), 도도혀다(陞), 도르혀다(도로혀다, 廻, 回, 反, 返, 轉), 두르혀다(두루혀다, 두르혀다, 두로혀다, 反, 返, 轉), 드리혀다(드리혀다, 吸, 引), 드위혀다(두위혀다, 두의혀다, 뒤혀다, 되혀다, 反, 翻), 들혀다(揭, 提), 모도혀다(包, 括), 므혀다(裂), 버리혀다(開), 뷔트리혀다(擣), 뷔혀다(交擰), 비혀다(攀), 빼혀다(開折), 빼혀다(裂), 락혀다(裂), 솟그르혀다(>송구루혀다, 豎, 悚), 싸혀다(拔, 挺, 摘, 抽), 썰혀다(抽, 拔, 擢), 엽더리혀다(覆), 에우루혀다(에후루혀다, 에후로혀다, 圍, 繞, 遶), 움지혀다(縮), 움치혀다(縮), 저차리혀다(背), 조리혀다(小, 約; 拘攣), 좇고리혀다(蹲), 주리혀다(蹙, 減; 收; 拘攣), 좇구리혀다(蹲, 踞), 지혀다(倚), 추혀다(揚), 헤혀다(披, 坦, 撒改), 횃도로혀다(횃도로혀다, 回)

위에 제시한 것은 파생어의 목록으로, 동사 ‘ 혀 ’가 문법화를 겪어 접미사로 약화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사

‘혀/혀-’도 검토 대상이므로, 본래의 의미가 약화되지 않고 결합한 합성어도 함께 다룰 것이다. 한편, 이전 연구에서 파생어로 분류했던 것 중에서도 일부는 그 본래의 의미가 뚜렷하다고 보아 합성어로 재분류 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편의상 검토 대상 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¹⁰⁾,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며 분석하기로 한다.¹¹⁾ 단, 음상과 뜻이 둘 다 비슷한 어휘는 한 항목으로 모아서 살펴보겠다. 위 목록에서는 별개로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한 항목으로 모은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 (ㄱ)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의혀다’ (挽, 延)
- (ㄴ) ‘니르혀다’, ‘니르혀다’ (起)
- (ㄷ) ‘뵈혀다’, ‘비혀다’ (交擥, 攀)
- (ㄹ) ‘움지혀다’, ‘움치혀다’ (縮)
- (ㄴ) ‘쫓고리혀다’, ‘쫓구리혀다’ (蹲, 踞)
- (ㄷ) ‘싸혀다’, ‘쌌혀다’ (拔, 挺, 摘, 抽, 擢)

물론, 음상이 비슷하더라도 뜻이 다르면 별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가도혀다(收, 穡)’와 ‘거두혀다(收, 卷)’, ‘도르혀다(反, 返)’와 ‘두르혀다(廻, 旋, 轉, 反)’, ‘조리혀다(小, 拘攀, 蹙)’와 ‘주리혀다(收, 戢)’는 별도로 살펴보겠다. 그 결과 이 글에서 살펴볼 ‘켜다’ 관련 복합동사는 강제접미사 ‘-혀-’ 파생동사 45개, 동사 ‘혀-’ 관련 합성동사 6개, 동사 ‘혀-’ 관련 기타 파생동사 2개, 총 53개로 정리된다.

1.1. 파생어

(1) 가도혀다, 가도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가도-(囚, 監禁, 收)’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收, 捲攣(거두다, 오그리다)

10) 일부 예외도 있다. 형태나 의미가 관련된 항목은 가까이 놓았다.

11) 김유범(2005)의 방식을 참고하였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기우려 어즈러이 누늘 썰아 보고 쉽사리 病흔 허뒤를 가도혀노라 (歛傾
煩注眼 容易收病脚) <두시언해 초 14:2a>

놀라 므슴 일흔드시 햏야 양즈를 가도혀 뜰들 느리누르과드네니라 <번
역소학 8:27a>

네 발을 가도켜고 혼 번 눕고 니디 아니햏는 이논 (四足卷攣 一臥不起
者) <마경초집언해 상 74a>

‘가도혀-/가도켜-’에서 ‘-혀/켜-’의 선행요소(어근)는 ‘가도-’이다. 단일어 ‘가도-’는 주로 ‘囚, 監禁’의 뜻으로 쓰이며, ‘收’를 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¹²⁾ 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도리어 ‘收’에 가까운 뜻만 나타나며, ‘囚, 監禁’의 뜻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15~16 세기에 ‘收’의 뜻으로 더 널리 쓰이는 단일어 형태는 ‘가도-’보다는 ‘거두-’로 보인다. 의미로만 보면 ‘가도혀-’는 ‘거두-’의 파생어에 더 가까운 셈이다.

한편, ‘가도혀-’는 ‘收, 捲攣’의 뜻으로, ‘거두혀-’는 ‘擣, 褰’의 뜻으로 쓰여, 의미가 약간 다르다. ‘가도혀-’는 추상성이 강한 ‘收’를 포함하는 반면, ‘거두혀-’는 구체적 동작만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가도혀-’와 ‘거두혀-’를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¹³⁾ 물론 15세기보다 더 이전 시기에는 ‘가도-’와 ‘거두-’ 및 ‘가도혀-’와 ‘거두혀-’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捲攣’으로 해석되는 예문의 ‘가도켜-’를 보면, ‘켜-’가 접미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捲攣은 ‘켜다(引)’의 본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다. 『교학 고어사전』의 ‘가도혀다’ 항목에서는 파생어가 아닌 복합어로 소개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어근 ‘가도-’의 뜻만으로도

12) ‘눅므를 썩려 能히 가도디 몬호니(涕灑不能收)’ <두시언해 초 24:47>에 서는 ‘가도-’가 ‘收’를 뜻한다.

13) 이와 비슷한 경우로 ‘도르혀-’와 ‘두르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14)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예문은 생략하고 설명만 보인다.

가도혀다 ㉸ 거두다. [‘가도다’와 ‘혀다<引>’의 복합형.] ㉸혀다

‘捲攣’과 어느 정도는 관련지을 수 있으므로, ‘켜-’를 동사가 아닌 접미사로 처리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17세기까지만 나타나고, 18세기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거두혀다. 거두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거두-(收, 穡, 捲)’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擣, 褰(걷어 당기다, 오그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헌 덕로 브롬 드러 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 업스락 흥거든 (破損傷風擣擣潮作) <구급간이방 1:7b>

터럭이 브스스히고 녀구리 거두혀며 귀 느리디고 머리 노초노니 (毛焦廉弔耳搭頭低) <마경초집언해 하 52b>

입시울을 거두켜 웃는 형상 곱툼며 (褰唇似笑) <마경초집언해 상 71b>

‘거두혀-/거두켜-’에서 ‘-혀/켜-’의 선행요소(어근)은 ‘거두-’이다. 단일어 ‘거두-’는 ‘收, 穡, 捲’을 뜻하는 경우에 두루 쓰이지만, 파생어 ‘거두혀-/거두켜-’의 뜻은 ‘捲’에 가까운 ‘擣, 褰’으로 한정된다. 15~16세기에 ‘捲’의 뜻으로 쓰이는 형태에는 ‘걸-’, ‘간-’도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의미가 이동했거나 분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두혀-/거두켜-’의 ‘혀-/켜-’또한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擣, 褰’의 뜻은 ‘켜다(引)’의 본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다. 『교학 고어사전』의 ‘거두혀다’ 항목에서는 파생어가 아닌 복합어로 소개하고 있다.¹⁵⁾ ‘가도혀-/가도켜-’의 ‘혀/켜-’는 동사보다는 접미사에 가깝게 쓰인 예가 많으나, ‘거두혀-/거두켜-’의 ‘혀/켜-’는 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쓰임이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혀/켜-’는 접미사와 동사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예문은 생략하고 설명만 보인다.

거두혀다 ㉸ 걷어 당기다. [‘거두<捲>’+ ‘혀다<引>’의 복합어.] ㉸ 혀다

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17세기까지만 나타나고, 18세기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가동그리혀다, 가동고리켜다 (오그라지다)

【어근(선행요소)】 미확인. (‘가동그리-’, ‘가동고리-’는 없음)

【파생어 문법 범주】 자타동사 겸용

【파생어 의미】 捲攣(오그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네 발이 가동그리혀 눕고 니디 못흐느니 (四足卷攣 臥而起者) <마경초집언해 하 95a>

허리를 가동고리켜고 든니는 이는 등 힘이 알퐁이오 (弔腰行 脊筋痛)
<마경초집언해 상 76b>

선행요소(어근)를 확인할 수 없는 단어이다. 사전에서 ‘동고리다’는 찾을 수 있었으나 그 뜻은 ‘동그라미를 그리다’이므로 ‘가동고리켜다’와 바로 관련짓기는 어렵다.¹⁶⁾ ‘파생어의 품사도 ‘가동그리혀-’는 자동사처럼, ‘가동그리켜-’는 타동사처럼 보여 또렷하지 않다. 예문이 적기는 하나, 여기서는 자타동사 겸용동사로 처리해 둔다.

의미는 ‘捲攣(오그리다)’로 앞서 살펴본 ‘가도혀-’, ‘거두혀-’와 비슷하다. 파생어의 의미가 ‘혀/켜-’의 본래 의미(引)와 관련되므로, ‘혀/켜-’가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행요소가 불분명하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동그리혀-/가동고리켜-’는 <마경초집언해>에만 나타나는 어휘이다. 이 문헌에는 ‘혀/켜-’ 관련 단어가 유난히 많다.

(4) 가혀다, 기키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가히-(帖)’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16)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파생어의 어근이나 합성어의 구성요소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다. ‘동고리다’를 관련시킨다고 해도 그 앞의 ‘가-’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파생어 의미】疊, 捲摺起 (개다, 개키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옷 가혀다(疊衣裳)<역어유해 상 47>, 옷 가혀다(疊衣)<방언유식 24a>, 가혀다(捲摺起)<한청문감 11:30>

扱 기킬 흡<한영자전 1187>

머리 씻던 슈건이 잇는디 가는 뵈와 긋치 잇지 아니^ㅎ고 썩로 긋켜 잇더라 <신약전서(1900) 요한 20:7>

이 단어는 15~16세기까지는 ‘가히-’로 나오던 것이나, 17세기부터 사전류에 ‘가혀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히-’와 공존하였다. 사전류가 아닌 문장 속에서 원형을 ‘가히-’가 아닌 ‘가혀-’로 확정할 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국어 ‘개키다’를 참고하면 근대국어의 ‘가혀다’를 강세접미사 ‘-혀/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어근 ‘가히-’ 뒤에 ‘-혀-’가 또 붙었다고 보기에 는 다소 문제가 있다. 문헌 자료만을 본다면, ‘가히-’의 활용형인 ‘가혀’, ‘가헬’ 등에서 어간이 역형성되어 ‘가혀-’가 나온 뒤, 거기에서 ‘-혀/켜-’가 파생접미사로 재분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5) 갖고로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갓ᄃᆞᆫ-’ (또는 부사 ‘갓고로’)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倒 (거꾸러뜨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聰明호몬 管輅 | 게 넘고 尺牘호요몬 陳遵을 갖고로혀리로다 (聰明過管輅 尺牘倒陳遵) <두시언해 초 19:5a>

허웅(1975/1981:195)에서도 언급한 단어이나 정작 목록에는 빠져

17) 물론 어간이 ‘가히->*가이->개-’ 변화를 겪은 뒤 ‘-켜-’가 붙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는 ‘*가히혀-’나 ‘*가이켜-’ 등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반면 ‘베혀-’, ‘떼혀-’ ‘썰혀-’는 예전에는 인식되던 ‘-혀-’가 나중에는 인식되지 않게 바뀌어 상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있으며, 고어사전류¹⁸⁾에도 보이지 않는다. 예문도 위에 제시한 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갓고로왈다’, ‘갓고로티다’를 참조하면 ‘갓고로혀다’도 존재하는 단어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선행요소(어근)는 형태로 보아 부사 ‘갓고로’가 가장 가까우나, 부사를 선행요소로 보면 강세접미사로 알려진 ‘혀/켜-’를 동사파생접미사로 봐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래 다룬 ‘기리혀다’의 경우 복합어의 의미를 보아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고, ‘혀-’를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갓고로혀다’의 경우는 복합어의 의미가 ‘당기다(引)’와는 거리가 멀므로 ‘혀-’를 동사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이현희(1996:647-648)에서는 ‘갓ㄴ로왈-’과 관련하여 ‘갓글-’의 사동사로 ‘갓글오-’ 외에 *갓ㄴ르/*갓ㄴ로/*갓고로-가 더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갓ㄴ로왈/갓고로왈-’의 논의를 ‘갓고로혀-’에 적용하면 선행요소를 타동사 *갓ㄴ르-(倒)’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혀/켜-’의 기능은 강세접미사로 파악된다.

(6) 거스리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거스리-’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逆(거스르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기운이 올오며 기운이 거스리켜며 기운이 답답히며 기운으로 알는 증
(上氣氣逆氣鬱氣痛) <남약증치방 3a>

고어사전류에 없으며, 예문도 위에 제시한 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거스리왈-’, ‘거스리티-’를 참조하면 ‘거스리켜-’도 존재하는 단어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켜-’는 선행요소의 어휘의미를 바꾸지는 않고 강조하는 기능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18) 글쓴이가 참조한 것은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세 종류이다.

(7) 거후리혀다, 거후르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거후리다, 거후르다, 거후르다, 거후루다, 거후로다, 거후루다, 거후루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傾(기울이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덜瓶을 거후리혀 박구기에 부어 다고 <윤선도 어부사시사, 고산유고>
아희야 질瓶을 거후르혀朴국이에 쳐다고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동가요>

예문은 위의 둘 뿐이다. 이 단어의 선행요소 ‘거후르-/거후리-’는 근대국어 자료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모두 같은 단어를 가리킨다. ‘-혀-’는 선행요소의 어휘의미를 바꾸지는 않고 강조하는 기능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8) 곱흐리혀다, 곱프리카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곱흐리-, 곱프리카- 곱흐리-, 곱프리카-’(蹠)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曲(구부러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다리눌 곱프리카고 둔니는 이는 믋딕 우히 알폼이오 (曲腿行 節上痛)
<마경초집언해 상 75b>
말을 못츠며 낫출 땡기고 몸을 곱흐리혀 못 견디여 흐는 형상을 빈대
<후슈호전 10:103>

예문은 위의 둘 뿐이다. 선행요소의 뜻이 ‘구부리다(蹠)’이므로,¹⁹⁾ ‘-혀/켜-’는 선행요소의 어휘의미를 바꾸지는 않고 강조하는 기능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9) 그리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그리-’

19) ‘좁싱으로 흐여곰 허리를 구프리고 싸히 누으며 (令獸蹠腰臥地)’ <마경초집언해 상 87a> ‘곱흐려 안사다(圭腰坐)<한청문감 7:27a>

【과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과생어 의미】 刺(그리다, 끼적거리다)

【‘-커-’의 기능】 강세접미사

器物入 안해 혼 번 디나면 크게 그리현 허므리 기리 걸엿느니라 (一經 器物內 永掛龜刺痕) <두시언해 중 16:70a>

예문이 하나뿐이라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리힐후다’(그리다, 마구 그리다)를 참고하여 비슷한 뜻으로 추정하였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굽히다’로 풀이하였고, 『이조어사전』에서는 ‘그리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에서는 ‘그적거리다’로 풀이하였다. ‘-혀-’는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10) 그우리혀다, 구우리혀다 (굴리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그우리-’

【과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과생어 의미】 倒(굴리다, 넘어뜨리다)

【‘-커-’의 기능】 강세접미사

難陀調達은 象을 티츠며 그우리혀고 둘희 힘이 달오미 업더니 <월인천강지곡 14b>

이 드레 물 듬디 아니흐느다 엇디하야 구우리혀료 (這酒子是不沈水 怎生得倒) <번역노걸대 상 35a>

드레를 드려 물 우희 띄워 베타 구우리혀 드레 맛바다 드러가면 즉재 물 먹느니라 (將酒子提起來 離水面擺動倒 撞入水去 便喫水也) <번역노걸대 상 35b>

해당 예문은 위에 적은 것이 전부이다. 이현희(1997)에는 ‘그우리혀-’도 기록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구우리-’가 굴리다(轉)를 의미하므로,²⁰⁾ ‘그우리혀/구우리혀-’의 ‘혀/혀-’는 강조하는 기능과 함께 의미도 약간 변화시킨 듯하다.

20) ‘轉法은 法을 그우리릴 씨니’<석보상절 6:18a>

(11) **글희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글희다’, ‘글흐다’ (끄르다, 풀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開(벌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슈은 탄죽만 흐닐 이블 **글희혀** 붓고 (水銀 如彈子 大幹 開口灌之) <구급간이방 7:40b>

水銀을 탄죽 킨만 흐야 이블 **글희혀** 붓고 (水銀 如彈子 大幹 開口灌之)
<구급방 하:82>

해당 예문은 위에 적은 것이 전부이다. ‘글희/글흐-’가 ‘끄르다, 풀다’를 뜻하므로,²¹⁾ 이곳의 ‘-혀-’는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끄르다(解)’와 ‘벌리다(開)’는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파생어 형성 결과 미미한 의미변화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12) **기우리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기우리-’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傾, 傾側, 偃(기울어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글 비즌 後輩를 **기우리혀고** 風雅는 藹然히 외로이 々는 듯흐도다 (詞華 傾後輩 風雅藹孤騫) <두시언해 초 8:64a>

독을 **기우리혀고** 프레 주근 사르믈 독 우희 두되 (瓮傾之以死人着瓮上)
<구급간이방 1:73b>

虎牙와 銅柱 | 다 **기우리혔도다** (虎牙銅柱皆傾側) <두시언해 중 25:44b>

이 단어는 대부분 <두시언해>에 나타나나 <구급간이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동사 어근 ‘기우리-’는 쉽게 확인되는 형태이다. ‘-혀-’는 강세접미사로 쓰였다.

(13) **나소혀다/나오혀다**

21) ‘막되막되 사지를 글힐 켜 (節節支解時)’ <선종영가집언해 하 50>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나소-, 나오-’(나아가게 하다, 드리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進(나아가(게 하)다), 드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나소혀 불딘댄 내 모매 그득혀야 잇느니<칠대만법 2a>

모든 선비를 나오혀 告혀야 곁오되 (引諸生告之曰) <소학언해 선조판 6:7a>

소혀고 머니라도 나오혀 되접혀되 <소학언해 선조판 6:108a>

甲갑의 棍곤을 티고 흔 바를 나오혀 가슴게를 흔 번 디르라 (打甲棍 進一足 當胸一刺) <무예제보 10a-15a>

主人의 右의 卹로 位혀되 저기 나오혀 여러 行널혀야 西上혀며<가례언해 1:25a>

제경궁 하향을 嚮코져 ㅎ시다가 초일일의에 작헌네로 나오혀 嚮ㅎ시니 <어제경세문답속록 44b>

이 단어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무예제보>에는 비슷한 동작을 여러 번 설명한 탓에 ‘나오혀-’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에 빠져있고, 『교학 고어사전』과 『이조어사전』에만 실려있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나소혀다’를 ‘내어 끌다’로, ‘나오혀다’는 ‘인접(引接)하다’로 풀이하였고, 『이조어사전』에서는 ‘나소혀다’를 ‘내어끌다’로, ‘나오혀다’를 ‘바치다’로 풀이하였다. 사전 풀이대로라면 두 단어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 변화가 일어난 사실로 보건대 두 단어는 별개로 보기 어렵다. 뜻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까닭은 어근인 ‘나소->나오-’가 두 가지 뜻(① 나아가다, ② 드리다, 바치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소혀다’, ‘나오혀다’ 역시 두 가지 뜻을 지니게 되었다.

‘-혀-’는 강세접미사로 보인다. 동사 ‘당기다(引)’와 관련지을 만한 예가 더러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도 어근 ‘나소-, 나오-’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혀-’를 독자성을 지닌 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14) 내히려, 내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나이-’, ‘나히-’, ‘내-’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出(내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太子 | 혼낫 欲心도 내히려 아니터시니 <석보상절 3:24a~b>法雲이 세계에 퍼면 도흔 씨 내혀느니 <월인석보 2:76a>甲갑의 棍곤을 티고 혼 바를 내혀며 가슴 켜 혼 번 디르라 (打甲棍 進一足 當胸一刺) <무예제보 10a~15a>

타동사 ‘내-’에 강세접미사 ‘-히려-’가 붙은 파생어이다. 어간을 ‘내혀/내혀-’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은 16세기까지만 나타난다. 그 이후에는 어간이 ‘나히-’인지 ‘나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만 보이며, 어간이 ‘나히-’일 경우는 강세접미사가 없는 형태일 수도 있으므로 ‘내혀-’와 관련짓기 어렵다.

현대국어의 자동사 ‘내키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와는 뜻과 용법이 사뭇 다르다. 다만 아래 예문의 경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혼번 내킨 거름이 뒤로 옴으라질 리치느 업슬 터이니 <독립신문 1896.7.2. 제2면>

위 예문은 19세기의 문장이나, 현대국어 자료에서도 ‘내킨 걸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분명히 가리기는 어려우나, 앞에 제시한 예문의 ‘혼 바를 내혀며’와 같은 구조로 분석한다면 ‘내다(出)’를 뜻하는 타동사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마음이) 내킨 걸음’에서 주어 ‘마음이’가 생략되었다고 설명하면 자동사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조의 ‘내키-’는 중세국어 타동사 ‘내히려-’와 현대국어 자동사 ‘내키-’ 양쪽에 관련되는 교묘한 예이다.

현대국어의 ‘내키-’와 중세국어의 ‘내혀-’는 모두 의미상 ‘出’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혀 무관한 단어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독립신

문>의 예와 같은 쓰임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 사이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처리한다. 아래 ‘들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15)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으혀다, 늘의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느르다’, ‘느리다’, ‘늘의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挽, 延(늘어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모로미 괴를 누이고 목을 **느르혀** 나의 칼흘 바드라 <명주보월빙 필사본 권지86, 385쪽>

네 엇테 보물 **느리혀** 히트새 맛즈기 훔다 (汝豈挽見齊於日面) <능엄경 언해 2:43b>

네 마리를 쏘티 아니헛거든 네 목을 **느리혀** 내라 <오륜전비 6:9b>

아래로 억도의 목을 **늘으혀** 브라미 밋여시니 이에 벼슬헛느니와 선비는 도정과 들혀서 경수로와 헛고 <왕세자책례후운음 2a>

도경이 쏘 목을 **늘의혀** 버히믈 청헛니 <오륜행실도 형제도 40a~b>

이 단어는 15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나타나며,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지만 ‘느리혀-’가 가장 많다. 타동사 ‘느리-’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은 파생어이다.

(16) **니르혀다, 니르혀다, 니르혀다, 니르혀다**

니르켜다, 니르혀다, 니르혀다, 니르키다, 니르혀다, 니르혀다, 니르켜다, 니르켜(켜)다, 니르켜(켜)다, 니르혀다, 니르켜(켜)다, 이르켜(켜)다, 이르켜(켜)다, 이르켜(켜)다, 일의켜다, 일의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니르-’, ‘니르-’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興, 起(일으키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바 **니르혀니** <월인석보 1:44>

뉘 愛樂호노 무르샤몬 妄本을 무러 **니르혀시니라** (問誰愛樂徵起妄本也) <능엄경언해 1:45b>

싸흠도 니르혀며 도흔 일도 나느니 (興戎出好) <소학언해 선조판 5:90b>

그를 굶어 니르혀 버혀도 굶디 아니흐놋다 (拽起頭來割不斷) <금강경삼가해 5:1b>

새로 니르켜 군식 <삼역총해 3:7a>

군스를 니르혀 드리오느니라 <오률행실도 충신 47a>

높히 니르혀을 (使高起) <무예도보통지 67>

피막을 밀어 니르키고 <마경초집언해 상 44a~b>

兵을 닐으혀 宋을 회복하려 헝다가 <여사서 4:35a>

드러 닐으혀다 (提起) <어록해 개간 14b>

넋적의 우공이 옥을 다스리미 크게 샤마 의문을 닐의켜고 <삼성훈경 10b>

그 집을 닐이켜 세울 생각은 적고 <독립신문 1896.5.23. 잡보>

고난에서 닐으켜서 높게 헝시고 <시편촬요 107:41>

差錯을 因하야 혼 念을 닐으혀 萬一偷生計를 하야 우음을 天下士大夫의 게 깃티면 <오률헌비 6:27a>

감히 죽기의 몸을 닐히켜 육하년 자를 꾸진넌다던지 <독립신문 1896.8.1. 논설>

근일에 인도 서북 변방에 토민들이 너란을 이르켜 <독립신문 1897.12.28. 논설>

동양 소견에 긴급한 의론을 이르켜 속히 계책을 결당 한다 헝였는디 <매일신문 1898.7.4. 외국통신>

나라되는 도가 학교를 이르켜서 인지를 굴으치는 것문 궂흠이 업는지라 <독립신문 1899.1.19. 좋은 의견>

이에 모든 마왕을 명하스 즉 일노 겁운을 일의켜게 헝시고 <과화존신 11b>

싱각을 일의혀다가 언마 못 되야 곳 히티혀며 <삼성훈경 22b>

15세기부터 현대(‘일으키다’)까지 이어지는 단어로, 예문도 아주 많다. ‘닐-(起, 興)’의 사동사인 ‘니르-’, ‘니르-’에 강세접미사 ‘-히려-’가 붙어 형성된 파생어이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적혀 나온다. 17세기에 이미 ‘니르키고’가 나타나, 강세 접미사 ‘-히려-’가 ‘-키-’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17) 님의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녀미-’ (‘니미-’는 보이지 않음)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끌어 여미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西湖 눈진 밤의 들썩치 낫 곳튼제 鶴擎을 넘의혀고 江阜로 놀여간이 蓬
 海에 羽衣 仙人을 마조 본 듯혀여라 <해동가요 주씨본, 240 許珣>

예문은 위에 제시한 하나뿐이다. 이현희(1997)에는 ‘녀미혀-’, ‘니미혀-’도 기록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녀...>니...’의 변화는 ‘니미쳐-’, ‘넘의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의 뜻풀이로 보아 ‘혀-’를 ‘당기다(引)’를 뜻하는 동사로 볼 수도 있으나, 당기는 동작은 여미는 동작과 겹치는 면이 크기에 ‘혀-’의 독자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강세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18) 도도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도도-’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돌우다(陞)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交趾 ㅅㅅ 知州 | 랫 벼스를 도도혀 히이신대 유덕흔 일와 레도로 승샹흔
 더니 ㅅㅅ이 항복혀야 좃더라 (陞交趾政平知州 專尙德禮 夷民懷 <속삼
 강행실도, 충신 3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제시한 하나뿐이다.²²⁾ ‘당기다(引)’와는 의미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때의 ‘-혀-’는 강세접미사이다. 그러나 『교학 고어사전』에는 ‘돌우어 켜다’라는 뜻으로 쓰인 ‘도도혀-’를

22) “슬프믄 과도히 햏여 스스로 몸을 도라보지 아니햏느뇨 도도혀 불통고집 햏미 심치 아니햏리오.” <엄씨효문청행록 15:1b>

“그 스랑햏미 실노 미워햏 곳지 못햏여 일녀를 밀치고 이즈를 경박 탕즈(蕩子)를 민 들고즈 햏니 원녀를 싱각햏라 햏미 도도혀 목전(目前)도 슬피지 못햏 곳튼지라.<완 월회맹연 21:4a>”라는 예문 둘을 더 찾을 수 있었으나, 이곳에 쓰인 ‘도도혀’는 문맥상 ‘도로혀’를 잘못 적은 결과로 보인다.

다른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파생어로 볼 수 없으므로, 아래 4.1.4.에서 다시 다루겠다.

(19) 도르혀다, 도르히다, 도로혀다

도로켜다, 도르키다, 도르히다, 도랏키다, 도리키다, 도랏키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도르-’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反, 返(돌이키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올흔 녀그로 도라 머리를 도르혀 혀로 太子人 두 누를 할하 대고줄 썩혀내니라 <월인석보 22:51b>

네 이제 生死人 欲流를 거스려 流根에 도르혀 다흐야 生滅 아니호매 가려 흥단댄 <능엄경언해 4:99b>

슬프다 鄧大夫는 士卒이 므츠매 戈戟을 도르혀니라 <두시언해 24:15a>
可히 슬프도다 後主를 도로혀 祭祀호느니 히 나조히 梁甫吟을 호노라 <두시언해 14:18b>

袂의 長短을 도로혀 구피면 肘에 맞는다 호여시니 <가례언해 1:39a>
노피 더 붉고 도로켜미 겁이 힘 갓튼니 (倬彼昭回如練白) <고문진보 5, 明河篇, 宋之問>

쥬의 증거를 아는 이는 내게로 도로키기를 원호느이다 <시편촬요 119:79>

스름이 힘을 다호여 착흔 도로 향호야 하눌 마음을 도르킬지어다 <과화존신 12a>

정리 가히 용서호염죽 호미 잇거든 비록 문안을 일위실지라도 반드시 공홀호여 도르히며 <경신록언석 60b>

머리를 도랏켜 청국의 전판을 보건디 <독립신문 1899.10.14. 외보>
압희는 갑옷시 잇스나 등 뒤에는 업스니 몸을 도리키면 상호기 쉬홀지니 <턴로력당 64a>

장군의 횡위를 비방 호느즌 홀노 더 위원들뿐만 아니라 즈기의 부하 장교 중에도 입술을 도랏키느가 적지 안흔 중에 <독립신문 1899.10.6. 외보>

15세기부터 현대(‘돌이키다’)까지 이어지는 단어로, 예문도 아주 많다. 이 단어는 ‘돌-’의 사동사인 ‘도르-’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어 형성된 파생어이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적혀 나온다.

15세기에는 부사 ‘도르혀’도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이는 동사 ‘도르혀-’와 품사의 통용(또는 영파생)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현대국어 부사 ‘도리어’로 이어졌다.

(20) 두르혀다, 두르혀다

두루혀다, 두루혀다, 두로혀다, 두르혀다, 두루키(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두르-’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廻, 旋, 轉, 反(돌이키다, 뒤집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流를 두르혀사 妄 업수믈 어드리이다 (旋流호야사 獲無妄호리이다) <능엄경언해 6:70a>

그 根源을 두르혀 推深호면 오직 眞實入 믋스미라 (反推其源 唯眞心也) <원각경언해 상1-1:46a>

모든 잇는 法을 두루혀 至極히 업수매 도라가믈 寶明空海에 가미라 <능엄경언해 5:52a>

아홉 둘애 빅절이 다 ㄴ자 몸을 세 번 두루혀고 <언해태산집요 8a>

回頭 마리 두로혀다 <역어유해 상 39bB>

충통 줄닐 두르혀면 곤당 쓰기와 ㄴ트니라 (鎗倒柄 與棍同用) <연병지남 25b>

혹 눈물을 흘니며 혹 낫출 두루켜 견디지 못호는 거동이오 <을병연행록 62>

15, 16세기에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17세기 이후로는 용례가 대폭 줄어든다. ‘두르혀-’의 뜻은 선행어근 ‘두르-’와는 사뭇 다르다. ‘두르-’의 뜻을 가장 상세히 나눈 『우리말 큰 사전』을 보면, ‘둘러싸다(圍), 휘두르다(揮), 돌리다(旋)’까지 세 가지 뜻풀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르혀-’는 ‘돌리다(旋)’와 관련된 뜻만 지니고 있어 ‘두르-’보다는 ‘도르-’와 더 가까운 뜻을 지닌다.

중세국어에는 양성모음 어간과 음성모음 어간이 거의 같은 뜻을 지닌 어휘가 많이 발견되므로, ‘도르-’와 ‘두르-’도 본래는 같은 뜻을 지녔던 단어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돌-’과 관련될 만한 ‘*돌-’은 보

이지 않으므로, ‘두르-’는 ‘도르-’와 달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여기서는 ‘도르-’와 ‘두르-’ 및 ‘도르혀-’와 ‘두르혀-’의 차이점을 중시하여, ‘도르혀-’와 ‘두르혀-’도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다. 앞서 ‘가도혀-’와 ‘거두혀-’를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 것과 비슷하다.²³⁾

(21) **드리혀다, 드리혀다, 드르혀다, 드리켜다, 들의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드리-’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吸, 吸縮, 吸引(들이켜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瘡은 바궤 氣分이니 사궤미 드리혀면 病ᄃᆞ니라 <능엄경언해 8:83a>
드트를 因ᄃ야 見이 나고 根을 因ᄃ야 塵을 드리혈씩 이런드로 眼入이
잇ᄃ니 <능엄경언해 3:2b>

형역기 검고 빠디고 독기 드리혀 ㅁ음이 아득고 답답ᄃᆞ ㅁ 데미괴 맛당
ᄃ니라 <언해두창집요 하 24b>

疑心시 이신 ㅁ 괴외히 無字를 잡드려 光을 드르혀 제 보리라 <몽산법
어(고운사, 빙발암) 3a>

이모 저모 두루 ㅁ쳐 두 술 반의 다 맞치고 ㅁ ᄃᆞ 그릇 ㅁ 드리켜고
<계우사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493>

저기 섯는 저 소남오 ㅁ도 설싸 길ᄃ의 가 적은듯 들의혀 저 굴형에 서
고라자 <해동가요 주씨본 76 鄭澈>²⁴⁾

15, 16세기 및 17세기 초까지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뜻밖에도 18, 19세기에는 문증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²⁵⁾ 이 단어가 현대국어의 ‘들이켜다’로 이어져 지금도 활발히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18, 19세기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자료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예가 적은 만큼, 표기형태도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다. 다만 같은 문헌 『능엄경언해

23) ‘가도-’와 ‘거두-’는 동사 ‘갈-’과 ‘걸-’이 모두 문증된다는 차이가 있다.

24) 『교학 국어사전』의 ‘-고라자’ 항목에는 ‘더기 섯는 더 소나모 길ᄃ의 설
줄 엇디 저근뎡 드리혀 더 굴형의 서고라자(古時調. 鄭澈. 松江)’라는 예문
이 나와 있으나 글쓴이의 옛말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5) 18, 19세기의 경우 연대가 확실한 인쇄 문헌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
았다. 17세기의 경우도 『두창집요』와 『가례언해』 두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에서 ‘드리혀-’와 ‘드리혀-’가 공존하는 현상은 눈여겨볼 만하다.

선행요소 ‘드리-’는 ‘들-’의 사동사로 ‘들이다(納, 入)’를 뜻하나, 파생어 ‘드리혀-’는 대부분 유정체언과 함께 쓰여 ‘들이마시다(吸)’를 뜻하는 경우에 쓰이므로, 파생어의 의미역이 다소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전의 뜻풀이로 보아 ‘혀-’를 ‘당기다(引)’를 뜻하는 동사로 볼 수도 있으나, 들이는 동작은 당기는 동작과 방향이 같으므로 ‘혀-’의 독자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강세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22) 드위혀다, 두위혀다, 드위혀다, 두위혀다, 뒤혀다, 되혀다, 뒤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드위-(飜)’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反, 翻, 飜(뒤집다, 뒤치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바미 고래 지여 드로미 숯바당 드위혀메서 색르니 (夫夜壑에 負起호미 速於反掌하니) <능엄경언해 1:16b>

六識을 브터 無名을 드위혀 햏야브료믈 表하니라 (表依六識햏야 翻破無明하니라) <법화경언해 1:58a>

能히 이 信을 發햏면 無明業識을 다 두위혀 (能發是信 頓飜無明業識) <법화경언해 2:160b>

煩惱를 드위혀 般若ㅣ 드외오 結業을 드위혀 解脫이 드외오 若 브튼 모믈 드위혀면 곧 이 法身이라 <원각경언해 상1-2:122a>

소늘 두위혀 구루믈 짓고 소늘 업더리혀 비를 햏느니 (翻手作雲覆手雨) <두시언해 25:55b>

左邊을 조차 두 그티 니르게 햏야 호던 나몬 깃을 다시 뒤혀 햏여곰 안호로 向케 햏고 <가례언해 1:46a>

괴운이 썩라디고 눈을 되혀고 입을 다물고 느치 검고 입시우리 프르고 입에 거품 나면 즈식과 업이 다 죽느니 <언해태산집요 27a>

비위 햏햏여 당위늘 뒤켜 플을 게오고 (脾虛飜胃吐草) <마경초집언해 상 32a>

중세국어에 ‘두의티- ~ 드위티-’, ‘두의힐후- ~ 드위힐후-’가 존재하므로, “두의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형태이나, 글쓴이는 ‘두의혀-’ 형태를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는 17세기 초까지 보이다가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15세기 국어의 ‘드위-’는 ‘飜(뒤집다, 뒤

치다)’을 뜻하는 것과 ‘索(찾다, 뒤지다)’을 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나, 파생어에서는 ‘攪’을 뜻하는 것만이 나타난다. 이 단어에서는 ‘당기다(引)’와 관련된 뜻을 찾기 어려우므로, ‘-켜-’의 기능은 강세접미사이다.

(23) 들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揭, 堤(들어올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揭 들혀 게 <신증유합 하 39b>

그 약이 이 물을 의지^히야 들혀 올라 일만 터럭 굵글 식히니 열면 (其藥藉此升提 開豁萬窮) <언해두창집요 하 45b>

그 옷깃식 쓰민 거슬 들혀고 상처를 보미 닛과 머리 썩여져 뉴혈의 즈취를 업시 ^히여시나 <완월회맹연 54:24b>

15세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16세기 이후부터 적게 나타난다. 타동사 ‘들-’과 의미가 거의 비슷하나, 마지막 예문의 경우는 현대어의 ‘들추다’와 가까운 의미로 약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들혀다’의 의미가 ‘당기다(引)’와 어느 정도는 관련되므로 ‘혀-’의 본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들다(提)’의 의미가 ‘당기다’와 겹치는 바가 있으므로, ‘혀-’ 고유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강세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현대국어 ‘들키-’와 위에 제시한 ‘들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할 만한 단어로 ‘들추다’가 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揭)’라는 뜻도 있고, ‘드러나게 끄집어내다(發現)’라는 뜻도 있다. ‘揭’와 ‘發現’은 한 단어의 의미역 안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관련성이 있는 의미항목인 셈이다. 이를 ‘들혀-’와 ‘들키-’에 적용하면, 두 단어를 별개로 보지 않고 선대형과 후대형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국어와 뜻이 같은 ‘들키-’는 18세기부터 나타나므로,²⁶⁾ 이 무렵 음상의 변화와 함께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내혀- > 내키-’의

논의와 비슷하다.

(24) **모도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모도-’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括(끌어모으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括 **모도혔** 괄 <신증유합 하 57a>

고어사전류 풀이에는 ‘끌어모으다’ 또는 ‘모아끌다’로 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혀-’ 본연의 의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선행요소와 ‘혀-’의 의미가 상당부분 겹치기도 하므로, ‘혀-’ 고유의 의미를 부정하고 강세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모도혀-’는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다른 예문을 더 찾을 수 있으나, 의미상 차이가 있다.

(ㄱ) 밤의 못 별이 혼 큰 별을 **모도혀** 들넛더니 <조야침재 29:22a>

(ㄴ) 인싱 지락이 일신의 **모도혔고** 만실(滿室) 화긔는 복녹을 천즈흐니 <완월회맹언 166:22a>

(ㄷ) 레비 일에 회당에 **모도히고** 만일 회당이 업거든 다른 디라도 임의로 흐라 <진리편독삼자경 50b>

(ㄹ) 경향간 남녀 로소가 구름궂치 **모도혀** 관광흐는즈 가히 슈를 헤지 못흘너라 <매일신문 1898.5.16. 잡보 3면>

(ㄱ)을 제외한 예문에서는 ‘모도혀’가 자동사로 쓰였다. 문맥으로 보아 그 의미도 현대국어의 ‘모이다’에 가깝다. (ㄱ)의 ‘큰 별’은 얼른 보기에 ‘모도혀’의 목적어처럼 보이나, 단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므로

26) 漏在眼裡 눈에 **들키다** <역어유해보 60b>

상고의 물화를 도적하다가 임즈의게 **들켜** 욱을 보며 <을병연행록 10:59>

‘모도혀’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차라리 ‘들넛더니’의 목적어로 보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ㄱ)~(ㄴ)의 예문에 나타나는 형태는 모두 자동사로 보인다.

이들은 앞의 타동사 ‘모도히-’와는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태 분석도 ‘모도-’에 피동접미사 ‘-히-’가 붙은 ‘모도히-’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²⁷⁾ 강세접미사 ‘-히-’는 일반적으로 타동사 어근에 붙어 다시 타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므로, 위 예문의 ‘모도히-’와 관련짓기 어렵다.

(25) 먹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미-

【과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扯, 裂(미어뜨리다, 찢어버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처섬의 덩흔 갑새셔 닛 랑 은을 더러 내여 므르는 갑새 헤오 글월 의혀
 브리라<번역노걸대 하 19b>

이 嶺 | 울어러 干犯^한안 히를 𐄀리왔고 구버 드런 두터운 ㅅㅅ 𐄀^의헛도
다 (仰干塞大明 俯入裂厚坤) <두시언해 중간본 1:27b>

侵陵하야 뒗 門을 허러브리고 두르힐휘 地軸을 의혀 브리낫다 (乘陵破
山門 回幹裂地軸) <두시언해 중강본 13:8a>

타동사 ‘되-’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이다. 17세기 초까지 쓰이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26) 버리혀다, 버리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버리-’

【과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開(벌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27) 근대국어 표기의 혼란상을 고려하면 피동접미사를 ‘-히-’가 아닌 ‘-이-’로 볼 수도 있다.

또 주근 사르미 이블 버리혀 通케 하고 더운 물로 즈늑즈늑기 이베 붓
고 <구급방언해 상 10a>

네 잇던 환도를 둘히 쫓쳐 칼흘 민들고 그애를 버리혀 그라 늘흘 민들
고 <계축일기 하 42a~b>

왼손으로 물 눈 버리켜고 올흔손으로 침을 잡어 <마경초집언해 상 91b>

17세기 초까지 쓰이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타동사
‘버리-’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은 파생어이다.

(27) 베히려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베-’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割, 斷, 斬(베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彌勒이 소노로 山을 베히려면 轉輪王이 큰 城門 여는 듯흐리니 <월석
23:43a>

이 단어는 강세접미사 ‘-혀/혀-’의 분석 여부부터 문제가 된다.
15, 16세기에 이와 관련된 형태로는 ‘바히-’, ‘배히-’, ‘버히-’, ‘베히-’, ‘버흐-’, ‘버흐-’, ‘버히-’가 있다. 이들의 활용형은 ‘버혀’, ‘베혀’ 등으로 나타나므로, 강세접미사 ‘-혀/혀-’의 유무를 파악하기가 다소 까다롭다. 그러나 15~16세기 용례를 모아 검토해보면, 어간말 모음을 ‘ㅑ’로 확정할 수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글쓴이가 찾기로는 위에 제시한 예문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의 ‘베히려-’만을 ‘베-’와 ‘-혀-’로 분석하고, 그 외의 경우는 ‘-혀-’와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한다. 비록 ‘베히려-’가 나타나는 예가 너무 적기는 하나, 중세국어에 강세동사 ‘베완-’, ‘베티-’등이 존재하므로, ‘베히려-’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다. 고어사전류에는 아직 ‘베히려-’가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아래의 ‘베히려-’와 마찬가지로이다.

파생동사 ‘베히려-’는 ‘베히-’의 활용형 ‘베혀’와 음상이 비슷한 탓에 구별되어 쓰이지 못하고 이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강조를 위해 강

세접미사를 붙였으나, 강세접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음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강조 표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근대국어 자료에 ‘*베켜-’, ‘*베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에는 ‘베히려-’가 이미 ‘베히-’로 대체된 듯하다.

(28) 뷔트리혀다

【어근(선행요소)】 자타동사 겸용 동사 ‘뷔틀-’?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擡(비틀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춤디 못혀야 구으러 싸해서 닐락 업더디락혀야 창직 뷔트리혀 거두 쥐는 듯혀야 <救簡 2:46a>

누늘 티쁘고 헌디로 브롬드러 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혀거든 <救簡1:7>

‘*뷔트리-’는 문증되지 않는다. 자타동사 겸용 동사인 ‘뷔틀-’(비틀다, 비틀어지다)가 가장 가까운 단어이나, 마지막 모음 ‘ㅣ’를 설명하기 어렵다. 강세접미사 ‘-혀-’앞에 오는 어근은 마지막이 ‘ㄱ, ㄷ, ㅁ, ㄴ, ㄹ, ㅂ, ㅅ, ㅈ, ㅊ, ㅋ, ㆁ’로 끝난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ㄱ’로 끝나는 어간 ‘뷔틀-’이 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ㄱ’로 끝나는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는 ‘들혀-’ 정도밖에 없고,²⁸⁾ ‘ㅣ’로 끝나는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많으므로, 유추를 겪어 형태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29) 뷔혀다, 비혀다 (뷔히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뷔-’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攀(비틀다, 비집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28) ‘밀혀-’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단어를 합성어로 처리하였으므로 강세 접미사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細雨 뿌리는 날에 紫芝 장옷 뷔혀잡고 <악학습령 734>

옷 짝락 뷔혀잡고 가지마소 흥논디 <악학습령 886>

다시곰 羅衫을 뷔혀잡고 後入期約을 못더라 <악학습령 904>

손 ㄱ락으로 눈두웨를 잠깐 뷔혀 여러 (略用指攀開皮) <두창집요 하 34b>

고어사전류에는 ‘뷔혀-’가 없고 ‘뷔혀-’만 있다. 이현희(1997)의 목록에는 ‘뷔혀다(交擽.)’와 ‘뷔혀다(攀)’ 두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뷔혀-’와 ‘뷔혀-’의 의미가 비슷한데다, 선행요소로 동사 “*뷔-”가 없기에²⁹⁾ ‘뷔혀-’의 선행요소도 ‘뷔-’가 가장 유력하므로,³⁰⁾ 여기서 둘을 같은 단어로 다룬다.

글쓴이가 찾은 범위에서는 ‘뷔혀-’가 합성어 ‘뷔혀잡-’의 내부에서만 나타나고 홀로 쓰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사 ‘뷔혀-’를 따로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 어간말 모음도 분명치 않으므로, 기본형이 ‘뷔혀-’인지 ‘뷔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사 ‘뷔-’가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 강세접미사가 붙은 ‘뷔혀-’도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가 비슷한 ‘뷔트리혀-’가 존재하므로,³¹⁾ 이를 참조하여 강세동사 ‘뷔혀-’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³²⁾

‘뷔혀’가 다른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瀟湘江 긴 디 뷔혀 하늘 밋게 뷔를 밋여 蔽日浮雲을 다 쓰러 브리과져 <가곡원류 043>

瀟湘江 긴 디 뷔혀 낙시 밋여 두리메고 不求功名하고 碧波로 내려가니 <가곡원류 044>

압 논에 오려³³⁾를 뷔혀 百花酒를 빗저두고 뒤ㄴ 東山 松枝에 箭筒 우회할 디여 걸고 <가곡원류 518>

29) 17세기에 ‘뷔-’가 나타난다. “실 뷔다(搓線)” <역어유해 하 6b>

30) 현대국어의 ‘비비다’와 같은 뜻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搓 뷔 차 挪 뷔 나 <훈몽자회 10b>, 捻線 실 뷔다 <동문유해 하 25a>

31)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뷔혀다’ 항목에서 ‘뷔혀잡다’, ‘뷔트리혀다’를 참조 단어로 제시하였다.

32) ‘뷔완-’, ‘뷔티-’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뷔혀-’의 존재를 긍정하기에 다소 주저하게 된다.

33) ‘오려’는 ‘올벼’의 옛말이다.

兒孺 나무 벌 제 倖兮 디 벌세라 그 디 즈라거든 뵤혀 히요리라 낙시디
 디를 <가곡원류 793>

글쓴이가 찾은 것은 위의 네 문장이 전부이다. 위 예문에 쓰인 ‘뵤혀’는 ‘베다(斬)’를 뜻한다. 역시 기본형이 ‘뵤혀-’인지 ‘뵤히-’인지 알 수 없다. 15세기 국어에 같은 뜻을 지닌 ‘뵤-’가 있으므로,³⁴⁾ 강세접미사 ‘-혀-’가 붙은 형태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베혀-’의 논의를 참조하여 비슷한 뜻을 지닌 ‘버히-’를 생각하면 기본형을 ‘뵤히-’로 잡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앞서 살핀 ‘交擰’의 경우는 강세동사 ‘뵤혀-’로 파악하고, ‘斷, 斬’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단일어 ‘뵤히-’로 처리한다. ‘뵤히-(斷, 斬)’는 ‘버히-’나 ‘베히-’에서 유추된 형태로 간주한다. 이 형태가 특정 문헌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유추에 말미암은 표기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30) 뵤혀다, 뵤혀다, 뵤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떼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말을 올히 너기샤 터리 뵤혀 주시고 손토블 쏘 주시니 <월인천강지곡 33a>

나뭇 니플 뵤혀다가 드려다가 싹기거늘 <월인석보 20:76a>

나거든 즉재 뵤혀고 시소디 날혹즈느기 말라 <구급간이방 7:31b>

글을 뵤혀샤 어마님 말을 보샤 父母人 ㅼ들 아스 ㅼ시니³⁵⁾ <월인석보 22:17b>

『교학 고어사전』과 『우리말 큰 사전』에는 ‘뵤혀-’로 실려있고, 『이조어사전』에는 실리지 않은 단어이다. 이현희(1997)에는 ‘뵤혀다’로

34) 오히려 벼 뵤는 功夫 | 기텃도다 (猶殘穫稻功) <두시언해 7:18b>

35) 예문의 내용은 태자(太子)의 부모가 기러기에 매어 보낸 글을 태자가 떼어 읽어보고 뜻을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제시되었다. 어간 말음을 ‘ㄷ’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 있으므로, 기본형을 ‘폐혀-’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선행요소 ‘폐-’도 문증되므로³⁶⁾ ‘-혀-’를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비슷한 구조로 형성된 ‘폐티-’의 존재를 감안하여도³⁷⁾ 파생어 ‘폐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류에 ‘폐혀-’가 실리지 않은 까닭은, ‘폐히-’, ‘떠히-’ 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폐혀-’를 ‘폐히-’와는 다른 단어로 분석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도 ‘폐혀-’를 ‘폐히-’, ‘떠히-’와는 다른 단어로 파악할 수 있다. 단, 17세기 이후로는 어간말 모음을 ‘ㄷ’로 확증할 만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근대 이후 강세접미사 ‘-혀-’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폐혀-’가 ‘폐히-’ 쪽으로 합류한 듯하다.

마지막 예문에 나온 ‘떠혀샤’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동사 ‘떠-’는 문증되지 않으며, 어간 말의 [j]가 탈락하는 일반적인 환경과도 사뭇 다르다. 이와 비슷한 예로 ‘헤혀-’와 ‘허혀-’가 있다. 강세접미사 ‘-혀-’ 앞에 오는 어근은 음운론적 제약을 보이는데, 어간 말음이 모음 ‘ㄷ’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31) 폐혀다, 폐혀다, 깨혀다

【어근(선행요소)】 자타동사 겸용동사 ‘폐-’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剖, 析, 裂(깨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마스돌 불겨 곱히야 폐혀미라 (爽其心_ㅎ야 以辯析이라) <능엄경언해 9:96b>

다시 鄰虛를 폐혀면 곧 眞實入 虛空이 性이니라 (更析鄰虛_ㅎ면 卽實空性이니라) <능엄경언해 3:68a>

가비얹고 불그니란 荔枝를 폐혀노라 (輕紅擘荔枝) <두시언해 15:52a>
 흔 치 아래 얹폴 사겨 특을 덩글고 깨혀 네 पू이 얹픽 잇고 八分이 뒤

36) 사람이 유무와 신물을 맞더든 可히 폐여 보며 머물오디 아닐 거시며 (人附書信이어든 不可開折沈滯ㅣ며) <소학언해 5:101a>

37) 고즌 봄 뜯들 머구머 이쇼매 폐터 달로미 업소디 (花含春意無分別) <백련초해 필암서원본 1a>

해 잇게 하고 <가례언해 7:32b>

자·타동사 겸용동사인 ‘빠-’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은 파생어이다. 15, 16세기에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17세기에는 쓰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18세기 이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2) **빠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빠-’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裂(마구 찢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交河에 몇 버늘 層層인 어르믈 불와 **빠혀** 브리니오 (交河幾蹴曾氷裂)
<두시언해 17:30a>

돌흔 둔거운 사흘 **빠혀** 드렛도다 (石與厚地裂) <두시언해 중간본 1:17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적은 둘뿐이다. 어간이 ‘빠히-’인지 ‘빠혀-’인지 명확히 가릴 수 없으나, 동사 ‘빠-’가 존재하고, 같은 구조로 파생된 강세동사 ‘빠티-’도 존재하므로, 파생어 ‘빠혀-’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33) **송구로혀다, 송구루혀다, 송구리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숫글-(悚)’, ‘숫그리-(竪)’, ‘송그리-(鬆開)’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웅크리다, 웅송그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楡店절 뒤에 옷둑 선 저 나무 곁헤 **송구로혀** 안즌 白松骨이를 <악학습령 882>

楡店절 뒤헤 우둑 선 전나모 곁헤 **송구루혀** 안즌 白松骨이도 <청구영언 (진본) 465>

楡店절 우희 옷둑 선 져나모 곁히 **송구리혀** 안즌 白松鶻이를 <고금가곡 255>

형태가 여러 가지처럼 보이거나, 모두 같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어휘의 이표기이다. 사실상 유일체라고 볼 수 있다. 예문만으로는 어간말모임이 ‘ㅣ’인지 ‘ㅑ’인지 알기 어려우나, 선행요소로 근대국어 시기의 ‘송그리-’³⁸⁾가 있으므로 ‘송그리-’와 ‘-혀-’로 분석할 수 있다.

(34) **쌔혀다, 썤혀다, 썤혀다, 썤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쌔-’?

【과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과생어 의미】 拔, 撥, 抽, 撤, 擢(빼다, 뽑다)

【‘-커-’의 기능】 강세접미사

旋嵐風이 부니 불휘 **쌔혀** 썤해 다 붓아디니 <월인천강지곡 58a>

根은 能히 **쌔혀디** 몬흐스오미오 <법화경언해 7:129b>

내 엄미 업슨 날에 복을 부터 구완흐야 **쌔혀되** 내 엄미 아모디 난는 즐
몰내다 <지장경언해 상25a>

悲無量은 衆生이 受苦를 슬피 너겨 **쌔혀고져** 호미 그지 업슬씨오 <석보
상절 13:39b>

비록 모든 根의 動호를 보나 모로매 혼 機를 **쌔혔디니** <능엄경언해
6:74b>

부처 권속이 악취이 이서 여 히여나디 몬흐야 목력으로 고노를 구완
흐야 **쌔혀과더** <지장경언해 중 11a>

선행요소로 가장 유력한 단어는 타동사 ‘쌔-’³⁹⁾이나,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근대국어 문헌에 나타난다. 선행요소가 다소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같은 구성으로 보이는 과생어 ‘쌔티-’⁴⁰⁾가 중세국어에 존재하므로, ‘쌔혀-’ 역시 동사 ‘쌔-’에 ‘-혀-’가 결

38) ‘송그리-’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숫그리-’로 나타난다. 근대국어 및 중세국어 시기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ㅅ>ㅇ’의 특이한 교체를 보여준다.

鬆開毛 털 송그리다 <역어유해보 48a>

오직 여으와 다뭇 슬기 터리 숫그려 날보고 怒흐야 우루믈
對호라 (但對狐與狸 豎毛怒我啼) <두시언해 중간본 4:11a>

39) 계미년에 군병 섹기늘 보아홀식 (癸末年監選兵)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7:32>

40) 문득 니러 늑뭇 象牙笏 썤터 가지고 드러 <삼강행실도 런던대학본 충신 16>

합된 파생어로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로 이 단어는 어간말 모음이 ‘ㄱ’로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에 제시한 『지장경언해』의 사례만이 예외로 보이나, 『지장경언해』는 『월인석보』 권21을 참조하여 펴냈으므로, 18세기 당시의 실제 언어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앞서 본 ‘베혀-’나 ‘떼혀-’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앞서 보았듯 ‘베혀-’와 ‘떼혀-’는 각각 ‘베-’와 ‘떼-’에 ‘-혀-’가 붙어 파생된 단어이나, 시간이 갈수록 ‘-혀-’가 인식되지 않게 되면서 ‘버히-’, ‘떼히-’와 합류하였다. ‘쌔혀-’ 역시 ‘쌔-’에 ‘혀-’가 붙은 파생어였지만, ‘-혀-’가 인식되지 않게 되면서 ‘쌔히-’로 재구조화되었다. ‘*쌔켜-’, ‘*쌔키-’, ‘*쌔켜-’, ‘*쌔키-’등 ‘ㄱ’ 계열의 형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대국어 시기 이전에 재구조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35) 업더리혀다

【어근(선행요소)】 자동사 ‘업더리-’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覆(엎치다)

【-켜-의 기능】 타동사화 & 강세접미사

소늘 두위혀 구루믈 짓고 소늘 업더리혀 비를 흐느니 (飜手作雲覆手雨)
<두시언해 25:55b>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의 하나뿐이다. 그러나 파생어 ‘업더리완-’, ‘업더리티-’ 등이 존재하므로, ‘업더리혀-’ 역시 ‘업더리-’와 ‘-혀-’로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선행요소의 문법 범주이다. ‘업더리-’는 자동사이다. 강세접미사 ‘-혀-’의 선행요소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가끔 자타동사 겸용동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선행요소로 오는 경우는 이 단어 ‘업더리혀-’와 아래 다룰 ‘치켜-’ 둘뿐이다.

(36) **움지혀다, 움치혀다, 움치켜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움치-’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縮却(움츠러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니를 뵈 줌츰호몬 버므로미 그즈니 헛 그들 **움지혀사** 비르서 能히 꺾리라
(說時默은 絶資緣호니 縮却舌頭호야사 始解宣호리라) <남명집언해 하 18a>

쇼와 물왜 터리 치워 **움치혀** 고숨돈 곧더니라 (牛馬毛寒縮如蝟) <두시
언해 10:40a>

어러 蛟龍을 무더 南녁 갯뜨리 **움치혔느니** (凍埋蛟龍南浦縮) <두시언해
10:40b>

急縮頭 급히 **움치켜다** <역어유해 하 50b>

선행요소는 타동사 ‘움치-’이다. 이곳에 쓰인 ‘혀-’의 기능은 사전
마다 달리 분석하였다. 『이조어사전』에서는 ‘움치혀다’ 및 ‘움치켜다’
를 모두 ‘움치어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뜻풀이로 보면 ‘혀-’를 동사
로 보아 전체를 합성어로 이해한 듯하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움
치혀다’를 ‘움츠러지게 하다, 오므라뜨리다’로 풀이하는 한편, ‘움치켜
다’는 ‘움치어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움치혀다’는 파생어로, ‘움치켜
다’는 합성어로 이해한 듯하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움치켜다’는
따로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움치혀다’는 ‘움츠러뜨리다’로 풀이
하였다. 모두 파생어로 본 셈이다.

‘움츠리-’의 뜻은 ‘당기다(引)’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혀-’
고유의 뜻이 독자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
는 이러한 경우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는 앞서 보았던 ‘가도혀-’,
‘거두혀-’, ‘가동그리혀-’, ‘넘의혀-’, ‘드리혀-’, ‘들혀-’, ‘모도혀-’
와 마찬가지로이다.

(37) **저차리켜다**

【어근(선행요소)】 알 수 없음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背(뒷짐 지우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막대과 노흘 가지고 더 집의 가 老李를다가 자바 저차리켜 미고 (將棍繩到那家裏 把老李拿着背綁了) <박통사언해 중 28b>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제시한 것 하나뿐이다. 선행요소로 ‘저차리’ 형태는 찾을 수 없다. ‘젯-’과 관련될 듯하나, 형태상 문제가 크다. 파생어의 문법 범주도 위의 예문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혀-’가 결합한 파생어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타동사로 추정한다. 고어사전류에는 ‘뒷집 지우다’로 풀이해 놓았다.

(38) 조리혀다, 주리혀다¹⁾, 주리히다, 주리켜다, 주리키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조리다’

【파생어 문법 범주】 자타동사 겸용동사

【파생어 의미】 小, 拘攣, 縮(쪼그리다, 줄이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넛 사르미 므슴 조리혀 내 모를 느즈기 하며 (古人之小心黜己) <번역소학 8:28a>

約 조리혈 약 괴약 약 <신증유합 하 4a>

미줄리기 범하면 조리혀느니 (繫縛者相拘攣) <태산집요 69a>

즁싱으로 하여곰 노심을 주리혀디 못하며 (令獸尿[肉+尋]不縮) <마경초집언해 하 79b>

버히인 곳이 갖치 죄이여 주리히디 아니코 (被割處 | 皮不緊縮호고) <증수무원록언해 3:39b>

다리를 주리켜고 든니는 이는 아비과 곡척이 알퐁이오 <마경초집언해 상 76a>

그 被刀흔 곳이 갖과 슬히 죄여 주리키고 <증수무원록언해 3:36b>

선행요소로 타동사 ‘조리-’는 확인되나, ‘*주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리치-’⁴¹⁾가 문증되므로 ‘*주리-’의 존재도 추정할 수 있다. ‘혀-(引)’ 본래의 뜻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혀-’ 고유의 의미가 독자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혀-’를 동사로 간

41) 주리쳐 썬여 혼 번 티고 (縮跳一打) <무예도보통지 26b~27a>

주하므로, 이곳의 ‘-혀-’는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 단어는 타동사로도 자동사로도 쓰인다. ‘-혀-’가 결합된 파생어가 자동사로도 쓰이는 예는 앞서 ‘가동그리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문에 나타나는 ‘주리혀-’는 두 가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收, 戢’을 뜻하는 경우를 별개로 처리하여 아래에 다시 다룬다.

(39) 주리혀다2

【어근(선행요소)】 알 수 없음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收, 戢(거두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넛 느죽하야 주리헛던 니피 니르왔고 새 ㄴ려 거덜는 어미 여러 브리로 다 (舊低收葉舉 新掩捲牙重) <두시언해 18:9b>

戢 주리헛 줍 <신증유합 하 33b>

이 몸 주근 後면 지게 우히 거적 더퍼 주리혀 밋여 가나 <청구영언 진본 463 將進酒辭>

括髮은 닐은 삼 노호로 머리를 주리혀 밋미오 <가례언해 5:27b>

이 단어는 ‘小, 縮’을 뜻하는 ‘주리혀-’와는 뜻이 사뭇 다르다. 『교학 고어사전』, 『우리말 큰사전』의 ‘주리혀다’ 항목의 뜻풀이에는 ‘거두다, 걷어모으다’만 나타나고 ‘줄이다’는 나타나지 않으나, 앞서 보았듯 ‘줄이다’를 뜻하는 ‘주리혀-’도 존재한다.⁴²⁾ 『이조어사전』에는 ‘주리혀다’는 ‘縮’으로 풀이하고, ‘주리혀다’는 ‘걷다, 걷어모으다’로 풀이하였다. 별개의 두 단어로 처리한 셈이다. 『17세기 국어사전』에서는 ‘주리혀-’를 셋으로 나누어서, 첫째는 ‘오그리다, 쭈그리다’, 둘째는 ‘걷다, 걷어모으다’, 셋째는 ‘줄이다(縮)’로 풀이하였다.

‘縮’과 ‘收’는 의미상 어느 정도 통하는 바가 있다. 위에 든 『가례언해』의 예문 ‘머리를 주리혀’는 풀었던 머리카락을 모아서 묶는다는 뜻이다. 머리를 묶으면 부피가 줄어드니 ‘縮’과도 관련되고, 묶으면 흘

42) 고어사전류에서 ‘주리켜-’, ‘주리히-’의 뜻풀이로는 ‘줄이다, 오그리다’ 등을 싣고 있다.

어진 것을 거두어들이므로 ‘收’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주리혀-’의 모든 용례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서 ‘가도혀-(囚)’와 ‘거두혀-(收)’를 별개로 나누었던 논리를 적용하여, ‘주리혀-’ 역시 동음이의어로 나눈다. ‘小, 縮’을 뜻하는 단어는 ‘주리혀-¹’, ‘收, 戢’을 뜻하는 단어는 ‘주리혀-²’로 처리한다.

이 단어는 타동사로 쓰인 예만 보인다. ‘-혀-’의 선행요소는 알 수 없다. ‘거두다’를 뜻하는 ‘주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小, 縮’을 뜻하는 ‘조리혀-/주리혀-’의 의미가 확장 및 분화를 겪으면서 ‘收, 戢’을 뜻하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

(40) 줏구리혀다, 주꾸리혀다, 주꾸리켜다

조소리켜다, 줏그리혀다, 줏쓰리혀다, 죽그리혀다, 죽쓰리혀다, 줏그리혀다, 줏그리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줏구리-’, 부사 ‘줏구리’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蹲(꾸그러뜨리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뒤호로 보면 개 줏구리혀 안즈니 꺾고 <마경초집언해 상 4a>

허리늘 주꾸리혀고 싸흘 뵈는 이는 오줌께 뒤트러더 알퐁이오 <마경초집언해 상 72b>

꼬리늘 살오고 허리늘 주꾸리켜는 이는 비기로 알퐁이오 (擺尾蹲腰者脾氣痛也) <마경초집언해 상 71b>

支者坐 조소리켜 안싸 <역어유해 상 40a>

싸흘 드릴 제 허리를 줏쓰리혀며 눕고져 호되 눕디 못혀며 <마경초집언해 하 76b>

헌 오솔 넘고 수플 속의 줏그리혀 안잣다가 (身衣敗絮 蹲於榛棘中) <태평광기언해 1:30a>

쇼당을 알코 허리를 죽그리혀고 싸흘 불오면 포경을 알코 <마경초집언해 상 105b>

즘싱으로 햏여곰 허리 죽쓰리혀 힘이 업스며 뒷싸리 고다 막대 ㄴ퐁여 <마경초집언해 하 43a>

빅꼬리의 니르러 좌우로 난화 셔며 톱원이 줏그리혀 안즈미 <후수호전 10:104>

燈蠹갓튼 눈을 번드기며 줏그리혀 안즈니 <유이양문록 36:33b>

고어사전류에는 ‘줏구리혀다’, ‘주꾸리켜다’, ‘조꼬리켜다’ 세 가지만 실려 있으나, 문헌자료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⁴³⁾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근대국어 초기에 활발히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있었던 단어로 보인다. 선행요소는 타동사 ‘줏구리-/줏그리-’와 부사 ‘줏구리/줏그리’⁴⁴⁾ 모두 가능성이 있다. 선행요소를 타동사로 보면 뒤의 ‘혀-’는 동사로도, 접미사로도 볼 수 있고,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면 뒤의 ‘혀-’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혀-(引)’ 고유의 뜻이 독자적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혀-’를 강세접미사로 처리하고, 그 앞의 ‘줏그리-’를 동사로 간주한다.

(41) 지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지어-, 지이-, 지여-’?

【파생어 문법 범주】 자타동사 겸용 동사

【파생어 의미】 倚, 靠, 靠著(기대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그 덩도으란 ㄹ세 지혀 믹오 林淨寺로 가는 ㄹ딕예 대수히 이쇼딕 <월인석보 8:99a>

등의 브스름 낸 사르미 궤예 지혀 이쇼미 어려우니 (有背疽之人難於隱几) <구급간이방언해 3:27a>

농이 물 어돔 ㄹ트며 버미 되 지혀 ㄹ트니 (如龍得水며 似虎이 靠山이라) <초발심자경문 야운 41b>

主人 兄弟 | 다 階下의 杖을 지혀 두고 드러가 哭호믈 盡哀호고 그치라 按호니 <가례언해 9:13b>

구정누의 올라 난간을 지혀서 남녁흘 바라시니 <명황계감 필사본 2:13a~b>
척상의 지혀 도을더니 문득 쏜의 혼 아문으로 드러가니 <태상감응편 3:47a>

선행요소로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15

43) 이현희(1997)에는 ‘줏고리혀다’도 제시하고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었다.

44) 훈무적에 좃구리 걸안자 (蹲踞土堦호야) <법화경언해 2:118a>

세기 국어에 倚를 뜻하는 ‘지여-’, ‘지이-’, ‘지여-’를 찾을 수 있다.⁴⁵⁾ 이전 시기에는 동사 ‘*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파생어 ‘지혀-’는 기대는 대상이 대격형으로도 나오지만 처격형으로도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타동사 겸용 동사로 간주한다. 현대국어 ‘기대-’도 이와 비슷하게 쓰인다.

(42) **추혀다, 쉼혀다, 추키다, 쉼키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추-’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겸용 동사

【파생어 의미】 揚(추키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 동사)

홀연 사해 구러더 네 발을 공둥으로 **추혀며** (忽然倒地호야 四足稍空호며) <마경초집언해 하 98a>

친히 붓드러 버기의 누이고 니불을 **쉼혀** 덩흐미 <완월회맹연 124:24b>
강녕부정이 종을 **추켜** 나를 꾸지즈라 호야늘 <속삼강행실도 중간본 충신 5a>

내비위에 맞는다고 늬을 **쉼켜** 세우다가는 <매일신문 1898.6.30. 논설>

현대국어의 ‘추키-’로 이어지는 단어이나, 문헌자료에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예문은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나, 15세기에 타동사 ‘추-’가 보이므로,⁴⁶⁾ ‘추혀-’ 역시 15세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혀-(引)’ 본래의 의미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나, ‘추-’와 구분되는 별도의 의미가 포착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여

45) 예문은 다음과 같다. ‘지여-’는 타동사로 쓰인 것이 확인되나, ‘지여-’와 ‘지이-’는 그런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机는 안자 **지여**는 거시라 <석보상절 11:34b>

님금 白玉堂에 올라 님금 金華省에 **지이니라**(上君白玉堂 倚君金華省) <두시언해 24:41a>

흔디 셔며 흔디 말흐며 흔디 녀며 모뎡 셔르 **지이며** 셔르 期約홀씨오 <능엄경언해 7:54b>

46) 시혹 혈며 시혹 기리샤 當時에 누리 누르며 **추실** 썩르미시니라 <선종영가집 하 70b>

기서는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 파생동사는 합성어 ‘추혀들다’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에서는 ‘추켜세우다’도 합성어로 처리하여 사전에 올렸다. 문헌자료에서는 ‘추혀뒸다’도 상당히 많이 나오나, 고어사전류에는 보이지 않는다.

(43) **칙켜다**

【어근(선행요소)】 자동사 ‘칙-’

【파생어 문법 범주】 자동사?

【파생어 의미】 偏(치우치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흔 실만 **칙켜면** 침을 아니 줌만 꺾디 못흐니라 (偏一絲不如不針) <마경 초집언해 상 55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적은 것 하나뿐이다. 선행요소는 중세국어 자동사 ‘칙-’⁴⁷⁾이다. 일반적으로 ‘-혀-’의 선행요소는 타동사이나, 앞서 다룬 ‘업더리혀-’와 이곳의 ‘칙켜-’는 예외로 자동사가 쓰였다. 현대국어 ‘치키-’와는 뜻이 너무나 다르므로 관련성이 없어보인다. 현대국어 ‘치키-’는 뒤에 다룬 ‘치혀-’와 관련된 단어로 보인다.

(44) **헤혀다, 헤혀다, 헤켜다, 허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헤-’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披(헤치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生滅 根元이 이를 브터 **헤혀** 나타 모든 十方 十二衆生을 보디 (生滅根元이 從此披露호야 見諸十方十二衆生호디) <능엄경언해 8:90a>

도로혀 雲霧를 흔 번 **헤혀고저** 스랑호다라 (還思霧一披) <두시언해 20:50a>

누싱은 비를 **헤혀고** 상 우히 누엇고 (柳生坦腹於臨軒榻上) <태평광기언해 1:22a>

47) 平等은 ㄱ틀 씨니 ㅎ녁 천 公事 아니 흘 씨라 <월인석보 1:45b>

머리터럭을 헤켜고 빗기되 (撒開頭髮梳) <박통사언해 상 40a>

김시 제 남진의 분묘에 드라가 폴 허혀고 사흘 싸물 자니라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열녀 7b>

타동사 ‘헤-’에 강세접미사 ‘-히려-’가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이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용례가 확인되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허혀-’는 음운론적으로 다소 설명하기 까다로운 형태이나, 앞서 ‘빼혀-’와 ‘떠혀-’에서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45) 횃도로히려다, 횃도로혀다

【어근(선행요소)】 타동사 ‘횃도르-’ 부사 ‘횃도로’

【파생어 문법 범주】 타동사

【파생어 의미】 회(회돌리다, 돌이키다)

【‘-켜-’의 기능】 강세접미사

모딘 버리 變怪를 能히 썰리 횃도로히려 <월인석보 10:102a~b>

巫峽엿 ㄹ숯 ㄹ겨른 天地를 횃도로혀는 듯 ㅎ도다 (巫峽秋濤天地回)
<두시언해 23:30b>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를 제외하면 15, 16세기에만 나타난다. 선행요소는 타동사 ‘횃도르-’와 부사 ‘횃도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음운 면에서 부사 ‘횃도로’가 더 가깝기는 하나, 그렇게 처리할 경우 ‘혀-’를 동사로 봐야 하는데, 복합어에서 동사 ‘혀-(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음운이 약간 다르더라도 동사 ‘횃도르-’를 선행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⁸⁾

지금까지 45개의 파생어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강세접미사 ‘-히려/혀/켜-’와 관련된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이현희(1996:647~649)에서는 제2, 제3음절의 ‘·/ㅡ’가 ‘ㄱ/ㅌ’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사례로 동사 “*갓ㄹ-”와 ‘갓ㄹ로완-’, 동사 ‘도르-’와 부사 ‘도로’, 동사 ‘횃도르-’와 부사 ‘횃도로’, 동사 ‘너므-’와 부사 ‘너무’ 등을 들고 있다.

① 선행요소의 어간말음

어간말음	ㅣ	[j]	ㅡ	ㅏ	ㅑ	ㅓ	ㅕ	ㅗ	ㅛ
출현 빈도 [비율(%)]	44 (34.1)	34 (26.4)	16 (12.4)	12 (9.3)	9 (7.0)	8 (6.2)	3 (2.3)	2 (1.6)	1 (0.8)

위 표는 글쓴이가 찾은 모든 이형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예컨대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으혀다, 늘의혀다’의 경우 ‘ㅡ’가 2회, ‘ㅣ’가 1회, ‘[j]’가 1회 나타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⁴⁹⁾ 그리고 ‘닐으혀다(일으키다)’, ‘도릿키다’와 같은 경우, 어간말 ‘ㄱ, ㅅ’은 중철표기로 나타난 것이므로 실제 어간말음은 ‘ㅡ’로 처리하였다.

어간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단 한 번으로, 그나마도 유성자음인 ‘ㄹ’이다. 모음은 단모음이거나 하향이중모음이며,⁵⁰⁾ 단모음 중에서는 ‘ㅣ’의 비중이 단연 높다. 조음위치가 같은 ‘[j]’까지 포함시키면 전설 고모음의 비중이 60%를 넘는다.

② 선행요소 및 파생어의 문법범주

선행요소 ↓ 파생어	타동사 ↓ 타동사	자타 겸용 ↓ 타동사	타동사 ↓ 자타 겸용	? ↓ 타동사	? ↓ 자타겸용	자동사 ↓ 타동사	자동사 ↓ 자동사
출현 빈도 (비율)	36 (80%)	2 (4.4%)	2 (4.4%)	2 (4.4%)	1 (2.2%)	1 (2.2%)	1 (2.2%)

선행요소와 파생어 모두가 타동사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 외의 문법범주는 강세접미사 ‘-켜-’와는 결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9) 근대국어의 혼란한 표기법을 생각하면, 소수 특이형태들이 너무 많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들을 선별하여 걸러낼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일단은 본문과 같이 처리하였다.

50) ‘쥬혀다’, ‘쥬키다’에서 상향이중모음 ‘ㅟ’가 나오기는 하나, 이는 ‘ㅜ’의 구개음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ㅜ’로 간주하였다.

4.1.2. 합성어

(1) 걸위혀다

【선행요소】 타동사 ‘걸위-(拘, 鉤)’(걸리게 하다, 거리끼다)

【합성어 품사】 타동사

【합성어 의미】 拘引(걸어 끌다)

그르메논 프른 므리 ㄹ마니 걸위혀물 맛낫느니(影遭碧水潛句引) <두시언해 중 18:3b>

예문은 위에 들어보인 하나뿐이다. 한문 원문의 ‘句引(=拘引)’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으로 ‘걸위혀-’가 나와 있다. ‘걸위-’만으로는 ‘拘引’을 뜻하지 못하며, ‘拘’만 뜻하므로,⁵¹⁾ ‘혀-’는 한문 원문의 ‘引’에 대응하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걸위혀-’를 합성어로 처리한다.

(2) 기리혀다

【선행요소】 부사 ‘기리(永)’

【합성어 품사】 타동사

【합성어 의미】 永, 延(길게 당기다, 늘이다)

놀애는 마를 기리혀는 거시오 소리는 기리혀물 의지호는 거시오 (歌永言 聲依永) <소학언해 선조판 1:10>

목을 기리혀 칼홀 바다 죽다 (延頸受刃而死)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 1:73b>

다시 사라 열다솔 히를 기리혀 죽거늘 (復甦延十五年而歿)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5:87b>

선행요소로 동사 ‘기리-’, ‘길이-’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단어는 ‘譽, 頌, 讚’만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永’과 가까운 뜻은 나타나지 않는다. 뜻이 비슷한 동사로는 ‘기르/기르-’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동

51) ‘문저 欲으로 걸위여 잇그시고(先以欲拘牽)’ <법화 4:160a>, ‘四時와 八節에 도로혀 禮에 걸위여(四時八節還拘禮)’ <두시언해 중 8:28a>

사는 어간말 모음도 다르거니와 성조도 ‘平平’이므로, ‘기리혀-(平去去)’의 선행요소로 보기는 문제가 있다. 선행요소로 가장 무리 없는 형태는 부사 ‘기리(永, 성조는 平平 또는 平去)’이다.

이 합성동사의 의미는 『교학 고어사전』에서 세 가지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첫 번째 의미는 ‘길게 끌다’로, 위의 첫 번째 문장을 예문으로 들었다. 두 번째 의미는 ‘길게 빼다, 늘어뜨리다’로, 위의 두 번째 문장을 예로 들었다. 세 번째 의미는 ‘늘이다, 연장하다’로 위의 세 번째 문장을 예문으로 들었다.⁵²⁾ 세 가지 모든 의미가 ‘혀-’의 본래 뜻인 ‘당기다(引)’와 관련된다. 따라서 ‘기리혀-’는 파생어로 보기 어렵다.

부사 ‘기리’에 동사 ‘혀-’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보면 ‘기리혀-’ 전체는 합성동사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사 ‘기리’와 동사 ‘혀-’를 따로 떼어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조어사전』, 『교학 고어사전』, 『우리말 큰 사전』 셋 모두에 이 단어가 등재된 사실을 참조하여 우선 합성어로 처리해 둔다.

(3) 밀히려다, 밀혀다

【선행요소】 타동사 ‘밀-’

【합성어 품사】 타동사

【합성어 의미】 推引, 壓蹙(밀고 당기다, 밀고 끌고 하다)

바를 밀 밀히려는 오히려 盈縮이 이시려니와 <월인석보 10:122b>
길헤 드리 서르 다 밀혔도다 (行潦相壓蹙) <두시언해 중간본 13:7a>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밀-’과 ‘히려-/혀-’가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보인 둘 뿐이다. ‘혀-’ 본래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강세접미사로 볼 수는 없다.

(4) 에후로혀다, 에후루혀다, 에후르혀다

【선행요소】 타동사 ‘에우-’?

【합성어 품사】 타동사

52) 남광우(1997)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예문을 들어놓았다.

【합성어 의미】 圍引(둥글게 휘어 당기다, 휘감아 끌다)

항금흔 목을 에후로혀 안고 <청구영언 진본 536>

大棗불 붉은 柯枝 에후루혀 홀터 썩 담고 <가곡원류 809>

曹彬의 드는 칼로 무지개 휘운 드시 에후루혀 드리 노코 <청구영언 진본 499>

曹彬의 드는 칼로 무지개 휘운 드시 에후르혀 다리 녹코 <가곡원류 619>

이현희(1997)에는 ‘에우루혀-’ 형태도 제시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이 형태를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의 ‘혀-’ 앞에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동사 또는 부사 중에서 ‘에후로...’, ‘에후루...’, ‘에후르...’ 등의 형태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관련 있는 단어로 타동사 ‘에우-(圍)’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에우-’만으로는 그 뒤에 보이는 ‘로, 루, 르’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에후루치-’⁵³⁾가 있으므로 ‘에후루-’와 ‘혀-’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합성동사의 의미를 『이조어사전』에서는 ‘둘러 당겨’,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에둘러 당기다’, ‘둥글게 휘어 당기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휘감아 끌다’로 제시하였다. 세 사전 모두 ‘당기다, 끌다(引)’의 의미를 적극 드러내어 풀이하였다. 위에 제시한 예문도 ‘목을 끌어 당기다’, ‘대추 가지를 휘어 당기다’, ‘무지개 휘어지듯 둥글게 당기다’로 해석되므로, ‘당기다’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단어를 합성어로 처리한다.

(5) 자바혀다

【선행요소】 타동사 ‘잡-’

【합성어 품사】 타동사

【합성어 의미】 接引(잡아당기다)

接引은 자바혀 씨라 <월인석보 8:36a>

53) 치마쓰리 뒤가닭을 에후루쳐 휘여다가 압홍당의 썩 부치고 옥보방신 완보홀 제 <남원고사 필사본 1:22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보인 하나뿐이다. 예문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중세국어에 ‘자바들익-’, ‘잡아동기-’, ‘자바미-’⁵⁴⁾ 등이 있으므로, ‘자바히려-’도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잡-’과 ‘히려-’의 통사적 구성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6) **혀보다**

【후행요소】 타동사 ‘보-’

【합성어 품사】 타동사

【합성어 의미】 引見(데려다가 보다, 불러들여 보다)

開元中에 상네 **혀보시니** (開元之中常引見) <두시언해 16:26a>

『이조어사전』, 『교학 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라있으나, 『우리말 큰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다. ‘引見’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들여 보는 것을 뜻한다. ‘혀보-’가 그러한 뜻으로 쓰였다면 합성어로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문이 하나뿐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문의 ‘引見’을 축자 번역하면서 나타난 직역투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4.1.3. 동사 ‘히려-’에 다른 접사가 결합된 경우.

(1) **치히려다**

【분석】 접두사 ‘치-’ + 동사 ‘히려-’

【의미】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드리에 떠덜 믈 닌즈시 **치히려시니**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슬븍리 <용비어천가 87>

54) 예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썰리 덩바기엿 머리터리 혼 저봄을 므이 **자바들익요디** <구급간이방언해 1:30b>

머리터럭 혼 저부미 분즈르만 혼닐 **자바동기면** 즉자히 사느니라 <구급방언해 상 76a>

須彌山스 기슬글 후려 龍王을 **자바미야** <석보상절 24:30b>

『이조어사전』과 『교학 국어사전』에는 접두사 ‘치-’ 항목의 예문으로 위 문장을 들어두었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치히려-’의 분석에 관한 정보가 없다. 근대국어에 ‘치키-’가 있으나 뜻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치히려-’와 ‘치키-’를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다(‘치키-’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현대국어 ‘치키다’와 관련이 있기는 있으나 근대국어 시기의 예문이 없어 다소 문제이다.

(2) **혀힐후다**

【분석】 동사 ‘혀-’ + 강세접미사 ‘-힐후-’

【의미】 계속 당기다

비록 이브로 숨 쉬며 누를 떠도 **혀힐후고** 놀로물 마디 말며 (雖氣從口出呼吸 開眼猶引按莫置) <구급간이방언해 1:60b>

고어사전류에 없으나, 연규동(2005)에 제시된 단어이다. 동사 ‘혀-’에 강세접미사 ‘-힐후-’가 붙은 파생어로, 연규동(2005)에서는 원문의 ‘引’에 해당하는 단어로 보고 ‘계속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4.1.4. 그 밖의 경우

도도 혀다, 도도 키다

【분석】 부사 ‘도도’ + 동사 ‘혀-/키-’ (통사적 구성)

【의미】 돈우어 켜다

기러기 우는 밤에 닉 홀노 잠이 업서 殘燈 **도도 혀고** 輾轉不寐호는 츠에窓 밧게 굶은 비 소리에 더욱 茫然호여라 <樂學拾零 0548 康江月>
촉불을 **도도 키고** 두리 서로 마조 안저 갈 이를 싱각하고 보닐 이를 싱각호니 정신이 아득 한숨질 눈물 제워 경경 오열호야 <열녀춘향수절가 완판본 상42b>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도도혀-’를 둘로 나누어, 파생어와 합성어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도도혀-’

를 파생어로만 다루었고, 위와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⁵⁵⁾ 선행요소를 동사 ‘도도-’로 보면 위의 경우는 합성어(비통사적 합성어)로 파악되나, 선행요소를 부사 ‘도도’로 보면 합성어로도 볼 수 있고 통사적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부사 ‘도도’를 실어놓고, ‘도도혀다’에는 합성어 관련 내용을 신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도도 혀다’는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한 듯하다.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을 가르는 것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어사전들 사이에도 엇갈린 처리를 보이고 있다.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요소 ‘도도’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이곳에 쓰인 ‘도도’는 동사로 보기 어렵다. 어간복합어와 통사적 구성의 판별 기준을 논한 이선영(2006:70~82)를 참조하면,⁵⁶⁾ 이곳의 ‘도도’는 다양한 후행 성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사로 보아야 한다.⁵⁷⁾ 또한, 어간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합 이외의 제3의 의미가 생겨나곤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도도 혀다’는 ‘돋우어’와 ‘켜다’ 이외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도 혀다’를 부사 ‘도도’와 동사 ‘혀-’의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이 글에서 다룬 ‘혀-’ 관련 단어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아래에 보인다. 이형태는 생략하고 대표형과 의미만 적는다.

① 강세접미사 ‘-혀(>혀)-’ 파생동사 45개

가도혀다(收, 捲攣), 거두혀다(擣, 褰), 가동그리혀다(捲攣), 가혀다

55) 『이조어사전』에는 ‘도도혀-’가 실려 있지 않다.

56) 이선영(2006)에서 제시한 판별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선행 성분이 영변화 파생부사라면, 그 부사의 수식을 받는 후행 성분이 다양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선행성분이 영변화 파생부사라면, 동시대에 같은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부사가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57) 몇몇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저젓 사름도 갑슬 도도 내디 아니헝리라 <노걸대언해 上63a>

선동이 일엽주의 등불을 도도 달고 만경창파의 살갓치 오난지라<조웅전(고소설 판각본 전집3) 상8a>

초록우단 슈운혜를 밋시 잇게 도도 신고<남원고사 필사본 1:14b>

(疊), 갓고로혀다(倒), 거스리켜다(逆), 거후리혀다(傾), 곱흐리혀다(曲), 그리혀다(刺), 그우리혀다(倒), 글희혀다(開), 기우리혀다(傾), 나소혀다(進), 내혀다(出), 느르혀다(挽, 延), 니르혀다(興, 起), 님의혀다(끌어여미다), 도도혀다(陞), 도르혀다(反, 返), 두르혀다(旋, 反), 드리혀다(吸), 드위혀다(反, 飜), 들혀다(堤), 모도혀다(括), 므혀다(裂), 버리혀다(開), 베혀다(割), 뷔트리혀다(搖), 뷔혀다(攀), 뻔혀다(떼다), 뻔혀다(剖, 析), 띄혀다(裂), 승구로혀다(웅크리다), 썩혀다(拔, 擢), 업더리혀다(覆), 움지혀다(縮却), 저차리켜다(背), 조리혀다(小, 縮), 주리혀다2(收), 좇구리혀다(蹲), 지혀다(倚), 추혀다(揚), 칙켜다(偏), 헤혀다(披), 횃도로혀다(回)

② 동사 ‘혀(>혀)-’ 합성동사 6개

걸위혀다(拘引), 기리혀다(永, 延), 밀혀다(推引), 에후로혀다(圍引), 자바혀다(接引), 혀보다(引見)

③ 동사 ‘혀(>혀)-’ 관련 기타 파생동사 2개

치혀다(引), 혀힐후다(引)

2. 현대국어에 남은 ‘켜-’ 관련 동사들

17세기 이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켜다’가 관련된 복합어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들이 음운변화를 겪은 결과 ‘...켜...’, ‘...키...’ 형태로 남아있다. ‘...켜...’로 나타나는 경우는 ‘켜다’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나, ‘...키...’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동 및 피동접미사 ‘-이/히/리/기-’에서 왔는지 동사 ‘켜다’에서 왔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어휘를 대상으로 현대국어에 남은 ‘켜-’ 관련 동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표준어는 물론, 북한어, 방언, 비표준어 자격으로 실린 것들도 논의에 포함시킨다. 우선 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 어간이 ‘...켜...’, ‘...키...’로 끝나는 것을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

가리키다, 개키다, 거머삼키다, 내리키다, 내키다, 늘키다(참으며 흐느껴 울다), 돌이키다, 되삼키다, 뒤엎키다, 들이키다(가까이 옮기다), 들키다, 뭉키다(<뭉기다, 덩어리가 되다), 뭉키다(<뭉괴다, 덩어리가 되다), 부둥키다, 불러일으키다, 붙음키다(‘부둥키다’의 원말), 비키다, 삼키다, 시키다, 얹히고설키다, 엉키다, 움키다, 일으키다, 제키다(살갓이 조금 다쳐서 벗겨지다), 지키다, 집어삼키다, 짓시키다, 추키다, 치키다, 흠키다, 흠키다

들이켜다, 물켜다, 실켜다, 여립켜다, 헛물켜다

<북한어>

걸키다(걸리다-피동), 걸키우다, 내키다(내쉬다), 들이삼키다, 맞부둥키다(마주 부둥켜 안다), 모둥키다(뒤섞여 얹히다, 움켜쥐다), 물키다(모이다)

<방언 및 비표준어>

가르키다, 간질키다, 걸리키다(강원), 걸키다(걸리다, 거리끼다, 굽히다, 경상), 까물키다(까물치다), 놀래키다(충청), 뇌키다(눅이다, 평북), 닳키다(닳리다), 도디키다(흠치다, 경북), 두르키다(돌이키다), 들이키다(들이켜다), 들키다(들리다-피동), 디키다(들리다, 전남), 떨키다(놓치다, 전남), 뛰키다(뛰게 하다, 강원), 뜯키다(놓치다, 전남), 띠키다(뛰게 하다, 강원), 말니키다(말썽부리다, 평안), 물키다1(물리다(질리다), 전남), 물키다2(물쿠다(더워지다, 무르게 하다), 함경), 바꾸키다(바뀌다, 강원), 발키다(바치다), 배키다(숨기다, 함남), 벌키다(벗기다, 함남), 보키다(보이다-피동, 강원), 부내키다(떠들다, 함남), 부담키다(부둥키다, 평남), 부드키다(부둥키다, 함남), 부리키다(부르뜨다, 경남), 불키다(부르뜨다, 경상, 전남), 살키다(살리다, 평남), 숨키다(숨기다, 경남, 황해), 신키다(신기다, 강원), 썩키다(속이다, 경남), 썩키다(썩히다, 평북), 썩키다(속이다, 평북), 썩키다(스쳐서 상처나다, 전남), 아르키다, 안치키다(얹히다, 강원), 알키다(알리다, 전남, 충북, 함경), 웅키다(웅크리다, 제주), 우키다(안아주다, 함경), 웅키다(웅크리다, 제주), 일배키다(일으키다, 경남), 자키다(좃히다), 좃키다(좃히다, 경남), 젓키다(젓히다), 줌키다(잠기다, 제주), 지키다(지꼴이다, 경남), 징키다(지키다, 경남), 할키다(할퀴다), 흘키다(훑이다-피동, 경남)

위에 제시한 항목 중에서 ‘켜다’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일단 추려낼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무리이다.

(ㄱ) 형태에 ‘...켜...’가 나타나 현대국어의 공시적 관점으로도 ‘켜다’와 연결되는 단어: 들이켜다, 물켜다, 실켜다, 여립켜다, 헛물켜다

(ㄴ)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 자료에서 ‘-히려/혀/켜-’가 확인되는 단어: 개키다, 내키다, 들키다, 돌이키다, 두르키다(돌이키다), 들이키다(들이켜다), 일으키다, 추키다, 치키다

(ㄷ) ‘-키-’ 앞의 선행요소가 분석되는 단어: 걸키다(걸리다-피동), 걸리키다(걸리다), 내리키다, 놀래키다(놀래다), 땡키다(땡리다), 들키다(들리다-피동), 떨키다/떨키다(놓치다, 떨어뜨리다), 뛰키다/뛰키다(뛰게 하다), 몰키다(모이다), 바꾸키다(바뀌다), 보키다(보이다-피동), 살키다(살리다), 숨키다(숨기다), 신키다(신기다), 안치키다(앉히다), 알키다(알리다), 잣키다/젓키다(젓히다), 줌키다(잠기다), 훔키다(훔치다-피동)

이들 중 (ㄱ), (ㄴ)은 별다른 논란 없이 동사 ‘켜-’와 관련된 강세 접미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ㄷ)은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ㄱ)에 해당하는 단어들부터 짚어보겠다.

(1) 형태에 ‘...켜...’가 나타나 현대국어의 공시적 관점으로도 ‘켜다’와 연결되는 단어

형태에 ‘...켜...’가 들어있는 (ㄱ)의 단어 중 ‘들이켜-(<드리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명사+동사’ 구조이며, 이때의 ‘켜다’는 동사의 뜻을 보존하고 있다. 이들의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는 다음과 같다.

물-켜다 [-켜, -켜니] ㉡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다.

실-켜다 [실:--] [-켜, -켜니] ㉡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다.

【<실히려<월석> ←실+히려-】

여립-켜다 [-켜, -켜니] ㉡ 여리꾼이 손님을 끌어들이다.

헛물-켜다 [헛:--] [-켜, -켜니] ㉡ 애쓴 보람 없이 헛일로 되다.

‘물켜다’와 ‘실켜다’의 ‘켜다’는 ‘당기다(引)’의 뜻을 보존하고 있다. ‘여립켜다’에서도 ‘켜다’는 뜻풀이 ‘끌어들이다’에 대응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립’에 대해서 남한 사전에서는 ‘여리꾼’을 찾을 수밖에 없으나, 북한 사전에서는 명사 ‘여립’을 찾을 수 있다.⁵⁸⁾ ‘헛물켜다’도

명사 ‘헛물’과 동사 ‘켜다’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본래 비유로 쓰이던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들이켜다’는 중세국어에서 ‘드리히려-’로 나타나던 단어로, ‘마구 마시다, 세차게 들이마시다’라는 뜻이다. 복합어의 뜻풀이를 보아서 ‘켜다’의 본래 의미인 ‘당기다(引)’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며, ‘들이-’의 의미와 겹치기도 한다. 사실상 (ㄴ)의 단어와 성격이 비슷하다. 비표준 형태인 ‘들이키다’도 확인되나, 남북한 사전 모두 공식어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⁵⁹⁾

(2)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 자료에서 ‘히려/혀/켜-’가 확인되는 단어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에서 ‘히려/혀/켜-’가 확인되는 (ㄴ)의 단어들은 앞서 4.1.의 논의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해당 단어들의 옛말 형태를 간단히 밝히면 아래와 같다.

개키다(<가혀다, 키키다), 내키다(<내히려다), 돌이키다(<도로혀다<도르혀다), 두르키다(<두루혀다, 두르혀다, 두로혀다<두르히려다), 들키다(<들혀다), 일으키다(<니르히려다, 니르히려다), 추키다(추혀다), 치키다(치히려다)

이들 중 ‘개키다’와 ‘추키다’ 등은 ‘개다’ 및 ‘추다’와 형태 및 의미면에서 관련된 단어이므로 강세접미사 ‘-키-’를 공식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미사 ‘-키-’를 표제항으

58) 『조선말 대사전(증보판)』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여립 [명] 낚은 사회에서, 상점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들이 물건을 사게 하는 일. =여리. ◇ 여립(을) 켜다 낚은 사회에서, 여리꾼이 손님을 끌어들이다.

5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들이키다’를 ‘들이켜다’의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으나, 『조선말 대사전』을 확인한 결과, 북한도 ‘들이켜다’를 표준 형태로 삼고 있다. 한편,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 ‘들이키다’가 남북 모두 공식어로 사전에 올라 있다. 뜻풀이는 각각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남)’, ‘안쪽으로 향하여 다그다(북)’로 나와 있다.

로 올리지 않았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키-’와 ‘-이키-’를 표제항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⁰⁾

-으키- ㉠ ((동사 ‘일다’의 어간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키-02 ㉠ ((동사 ‘돌다’의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현대국어 공시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는 달랐다.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으/으-’이지 ‘-히-’가 아니었다. ‘니르히/니르히-(>일으키-)’는 ‘닐-’의 사동사 ‘니르/니르-’에 강세접미사 ‘-히-’가 붙은 것이고, ‘도르히-(>돌이키-)’는 ‘돌-’의 사동사 ‘도르-’에 강세접미사 ‘-히-’가 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사동사 ‘일으-’, ‘돌이-’가 없으므로 중세국어처럼 설명하기는 어려워졌다. 한편, 제2음절의 모음 ‘·/ㅡ’가 현대국어에 와서 ‘ㅣ’, ‘ㅡ’로 달라진 까닭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이 현대국어에서는 타당성을 지닌다.

한편, ‘-으키-’, ‘-이키-’를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앞서 제시한 (ㄱ), (ㄴ), (ㄷ) 어디에도 들지 못했던 단어 ‘아르키다’⁶¹⁾를 재분석할 수 있게 된다. 동사 ‘알-’에 사동접미사 ‘-으키-’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종래 ‘가르치다, 가리키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 가리키다’와 의미상 관련된 동사 ‘알다’에 이끌려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뜻밖에도 표준적인 형태소 분석이 가능해졌다.

60) ‘-으키-’와 ‘-이키-’를 사동 접미사로 파악한 것은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도 마찬가지이다.

61)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형태이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는 ‘아르키다’가 표제항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다. 근대국어 후기부터 용례가 보인다. ㉠ 손스 왈 불감흐를 아르키시니 황공흐야이다 흐며 <권용선전 활자본, 152쪽>

(3) ‘-키-’ 앞의 선행요소가 분석되는 단어

앞서 (ㄷ)에 제시한 단어는 ‘내리키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어 또는 방언 및 비표준어에서 확인되는 형태들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표준어 형태를 함께 보인다.

피동사: 걸키다(걸리다-피동), 걸리키다(걸리키다), 들키다(들리다-피동), 몰키다(모이다), 바꾸키다(바뀌다), 보키다(보이다-피동), 줌키다(잠기다), 훔키다(훔이다-피동)

사동사: 놀래키다(놀래다), 닳키다(닳리다), 뛰키다/뛰키다(뛰게 하다), 살키다(살리다), 숨키다(숨기다), 신키다(신기다), 안치키다(앉히다), 알키다(알리다), 잣키다/젓키다(잣히다)

파·사동과 무관하거나 불확실한 단어: 내리키다, 떨키다/떨키다(놓치다, 떨어뜨리다)

우선 파·사동과 무관한 ‘내리키다’, ‘떨키다/떨키다(놓치다, 떨어뜨리다)’의 ‘키’는 강세접미사로 볼 수 있다. 각각 타동사 ‘내리-’, ‘떨-/떨-’에 강세접미사 ‘-키-’가 붙어 파생된 단어로 분석된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내리키다’ 뿐이므로, 표준어 안에서라면 사전에 실린 대로 강세접미사 ‘-으키-’ 또는 ‘-이키-’가 붙어 파생되었다고 설명해도 무방하다.

피동사와 사동사에 나타난 ‘...키...’는 파·사동접미사 ‘-이/히/리/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해당 어간의 말음이 표준어와 달리 ‘ㅎ’으로 끝난다면, 접미사 ‘-기-’와 결합한 후 ‘...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켜-’에서 온 ‘-키-’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세접미사가 사동접미사로도 쓰이는 예가 ‘-뜨리/트리-’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⁶²⁾ ‘켜-’에서 온 ‘-키-’가 사동접미사로 쓰일 가능성도 부정하지는 못한다. 특히, 강원도 방언에는 유난히 ‘...키...’ 형태의 파·사동사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⁶³⁾ 적어도 이러한

62)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사와 결합한 ‘-뜨리(트리)-’만이 사동사를 형성한다. 함희진(2007:382) 참조.

방언의 공시태(共時態)를 분석한다면, 앞서 (ㄴ)에서 나타난 ‘-키-’와 (ㄷ)에서 나타난 ‘-키-’를 함께 아울러 파·사동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진다. 이 글에서는 일단, 파·사동사에 쓰인 ‘...키...’ 형태들을 ‘-이/히/리/기-’에서 온 것과, ‘-켜-’에서 온 것 두 가지가 뒤섞인 상황으로 처리해 둔다.

다만, 피동사와 사동사에 나타난 ‘...키...’라도 ‘걸리키다(피동)’, ‘놀래키다(사동)’, ‘안치키다(사동)’의 경우는 ‘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파·사동 파생 기능은 접미사 ‘-이/히/리/기-’가 맡고, ‘-키-’는 강세접미사로 쓰였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 ‘-이/히/리/기-’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키-’가 파·사동접미사로 쓰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놀래키다’의 경우가 주목된다.

‘놀래키다’는 사전에서 ‘놀래다’의 충청 방언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사실은 표준어 ‘놀래다’보다 더 활발히 쓰이고 있다. 동사 ‘놀라다’가 ‘놀래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⁶⁴⁾ ‘놀라다’의 사동사였던 ‘놀래다’와 구분이 어려워지자,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63) 은상현(2006)에 잘 나와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동사 : 누키다((오줌을) 누이다), 뉘키다(눅히다), 따키다(닭게 하다), 신키다(신기다), 씨키다(씻기다), 걸키다(걸리다, 걷게 하다), 놀래키다/놀리키다(놀라게 하다), 내리키다(내리다), 따끼키다/때끼키다(닭게 하다), 말리키다(말리다), 베키다(보이다, 보게 하다), 실리키다(싹게 하다), 찌키다/찌코다(찌우다, 쓰게 하다)

피동사 : 가키다(간히다), 따키다(닭이다), 바꾸키다(바꾸다), 비키다((칼에) 베이다), 장구키다(잠기다) 채키다(차이다), 흘키다(훑이다), 갈리키다(갈리다, 갈라지다), 기달리키다(기다려지다), 놀리키다(놀리다), 따끼키다(닭이다), 뜯피키다(뜯리다), 뵈키다/베키다(보이다), 흘리키다(흘리다), 흘티키다(훑이다) 위의 모든 형태가 ‘켜다’와 관련되는지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 지역에 ‘-코/쿠-’ 사동형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간 말음의 ‘ㅎ’과 접미사 ‘-기-’가 만나서 나온 ‘...키...’도 섞여 있을 것이다.

64) 비슷한 현상이 ‘바라다(望, 비표준형은 ‘바래다’)’ 등에서도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보차다’는 현대국어에 ‘보채다’로 굳어졌다. 이 현상은 2음절 어간이 모음 ‘ㅏ’로 끝나는 단어들 중 일부에 나타난다.

이다.⁶⁵⁾ 주동사를 ‘놀래다’로,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쓰는 언중들에게는 ‘-키-’가 사실상 사동접미사 구실을 하는 셈이다. 주동사를 ‘놀라다’로,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쓰는 언중들에게는 ‘-이키-’가 사동접미사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놀래키다’는 앞서 본 ‘아르키다(알으키다)’처럼 표준적인 형태분석이 가능한 단어가 된다.

17세기 이후 강세접미사 ‘-켜-’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일부는 현대국어 공시태에서도 분석될 만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한편 일부는 사동접미사로 재분석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는 ‘돌이키-’와 ‘일으키-’가 대표적이며, 비표준형태로 ‘놀래키-’와 ‘아르키-(알으키-)’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강원도 방언에서는 ‘-키-’가 파사동접미사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그 밖의 ‘켜다’ 관련어

3.1. 명사 ‘켜’

명사 ‘켜’와 동사 ‘켜다’를 관련지은 논의는 아직 없었다. 만약 이들이 관련된다면 명사와 동사의 어간이 동일한 사례이므로 품사의 통용 혹은 영파생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⁶⁶⁾

65) 일간 신문의 [우리말 여행]이라는 꼭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기도 했다.
“놀래키다’는 ‘놀라다’의 사동사다. 즉 남에게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다. ‘(남을) 놀라게 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놀래다의 방언’ 또는 ‘놀래다의 잘못’이라고 한다. 표준어가 ‘놀래다’이니 공적인 곳에서는 ‘놀래다’를 쓰라는 의미다. 그러나 ‘놀래다’는 소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 ‘놀래키다’라고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잘 전달된다.” (서울신문 2009. 8. 14, 29면)

66) 참고로, 송철의(1992:287)에서 제시한 현대국어의 동사-명사 동일어간 예는 다음과 같다.

가물-:가물, 깎-:깎, 누비-:누비, 되-:되, 뭉치-:뭉치, 신-:신, 배-:배, 품-:품, 띄-:띄, 꾸미-:꾸미 빗-:빗

이승욱(1974:157)에서는 동사-명사 동일어간 단어 목록을 갑류와 을류로

명사 ‘켜’는 옛말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켜 [I] ㉡ 1. 포개어진 물건의 하나하나의 층.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포개어진 물건 하나하나의 층을 세는 단위.

[II] ㉢ 노름하는 횃수를 세는 단위.

동사 ‘켜다’의 기본 의미는 ‘당기다(引)’이므로, 위의 명사 ‘켜’와 쉽게 관련지을 만한 뜻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툽으로 켜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쪼개다’ ‘나누다’와 통하는 의미를 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명사 ‘켜’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18세기 자료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동사 ‘켜다’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데 혼 큰 밧흘다가 켜 닐곱 조각에 밋드라 (他把扭田鋸作七片) <오륜전비 5:10b>

밧흘 엇디 켜리오/ 터라 / 밧흘 켜디 못흐리라 니르디 마르쇼셔 (田如何鋸得 / 打 / 莫說田鋸不得) <오륜전비 5:11a>

위 예문의 동사 ‘켜다’는 한문의 ‘鋸(툽, 톱질하다)’의 번역에 쓰였다. 문맥상 밧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했다며 불평하는 내용으로, 이곳의 ‘켜다’는 사실상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과 가깝다. 만약 명사 ‘켜’를 쪼개진 결과로 나타난 층으로 본다면, 동사 ‘켜다’와 명사 ‘켜’를 연관지을 수 있다.

나누어 제시하였다. 갑류는 성조까지 일치하는 것이고, 을류는 성조나 형태가 약간 다른 것이다. 옛 문헌 출전은 생략하고 어형만 아래에 보인다.

<갑류> 너출-:너출, 굿-:굿, ㄹ물-:ㄹ물, 길-:길, 빗-:빗, 누비-:누비, 뭉-:뭉, 밍-:밍, 짓-:짓, 굽-:굽, 아니-:아니, 누리-:누리, 비비-:비비, 두텁-:두텁

<을류a> 신-(R):신(H), 썩-(L):썩(H), 빅-(L):비(H), 안-(R):안ㅎ(H)

<을류b> 빅ㅎ-(LL):빅ㅎ(LH), 자히-(LH):쟝(h), 비취-(LH):빚(H), 굿-(L):글(H)

그러나 동사와 명사의 어간이 동일한 사례는 많지 않고, 이러한 사례는 아주 오래 전 시기(고대 또는 원시)의 언어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명사 ‘켜’가 옛말 자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동사 ‘켜다’가 ‘나누다, 쪼개다’를 뜻하는 예가 근대국어에서야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관련성을 말하기는 자못 조심스럽다. 다만 옛말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미처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3.2. 명사 ‘썰물’

이 단어는 앞서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밀물’의 반대 개념으로, 달의 인력으로 당겨지는 물을 뜻한다. 19세기에 보이는 ‘혈물/혈믈’의 예문 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밀물의 西湖오 혈물의 東湖동호 가자 至兪窓 至兪窓 於思臥 <고산유고 卷之六 별집>

밀물에 東湖 가고 혈물에 西湖 가자 <해동가요 주씨본 167>

김무림(2009)에서는 이를 영어의 ‘ebb’(썰물, 고대영어로 ‘나가다’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함)와 비교하여,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어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영어의 사고방식으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3.3. 부사 ‘불현듯’, ‘불현듯이’

이 단어는 본래 통사적 구성이었다가 자주 어울려 쓰이면서 한 단어로 굳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불현듯이’ 풀이는 다음과 같다.

67) 이승욱(1974:180)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동사를 포함한 모든 어항(語項)들이 어근범주의 분화형성이 있기 전의 단계에서는 원초적 의미체로서 동일한 자질의 형태범주이었을 것이다.”

불현-듯이 ㄹ ①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건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불현듯①

② 어떤 행동을 갑작스럽게 하는 모양. ≡불현듯②

【←불+혀- [<혀다<석상>/혓다<월석>]+-ㄴ+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미 밝혀놓았듯, 이 말 역시 중세국어의 동사 ‘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음운변화를 심하게 겪어, 현대 표준어에서 공시적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동사 ‘켜다’의 통시적 변화를 음운론 및 형태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켜다’의 음운론을 살펴본 3장에서는 방언분포형을 토대로 중세국어 음운 ‘ㅎ’의 실체와 음가를 탐구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 음운 ‘ㅎ’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음가는 ‘ㅎ’의 된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 동남방언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상황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켜다’와 관련된 파생어 및 합성어를 다룬 4장에서는 총 53개 단어를 용례와 함께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강세접미사 ‘-혀-’ 관련 파생어, 동사 ‘혀-’ 관련 합성어 등을 두루 다루었고, 강세접미사 ‘-혀-’ 파생어들은 선행어간의 음운론적 특징과 문법 범주를 통계로 정리하였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분류한 경우도 있다.

현대국어에 남은 ‘켜다’ 관련 어휘를 살펴본 5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관련어를 모두 찾고, 이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5장에서는 현대국어 공시적으로도 강세접미사 ‘-키(이키, 으키)-’를 분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 중 일부는 사동접미사로 재분석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참고문헌

1. 사전, 자료집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서울: 한국문화사, 1995, 재출간].
- 남광우 편저 (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6), 『조선말 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6), 『방언자료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유재원 (1985), 『우리말 역순 사전』, 정음사.
- 유창돈 (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 전광현, 이광호, 이병근, 최명옥 (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방언자료집』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홍운표, 송기중, 정광, 송철의 (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 오구라신페이(小倉進平) 저/이상규 이순형 교역 (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2. 논저

- 강은국 (1993),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곽충구 (1994), 「강세 접미사의 방언형과 그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북한지역의 방언자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구본관 (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김무림 (2009), 「‘불현듯이, 썰물, 켜다’의 어원」,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원.
- 김무봉 (1988), 「중세국어의 동명사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3, 동학어문학회.

- 김영배 (1997), 『평안방언연구』, 태학사.
- 김유범 (2005), 「중세국어 ‘-받-/-완(월)-’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국어학』 26.
- 김이협 편저 (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균 편저 (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 나영일, 노영구, 양정호, 최복규 (2006), 『조선 중기 무예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송철의, 이현희, 장윤희, 황문환 (2004),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연구동 (2005), 「‘힐후다’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18.
- 은상현 (2006), 『강원 지역어의 사동피동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198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병기 (2008), 「중세국어 ‘강세접미사’와 ‘보조용언’의 상관성」, 『국어학』 53.
- 이선영 (2006),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국어학총서 53), 태학사.
- 이승욱 (1974), 「동사어간형태소의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38.
- 이현희 (1996),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 구조」,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이현희 (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에 대한 일고찰」, 최태영 외, 『한국어문학논고』, 태학사.
- 차재은 (2003),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 최윤현 (2002), 「북한강, 남한강 유역의 방언」, 『방언』 (강원전통문화총서 4), 국학자료원.
- 함희진 (2007), 「{뜨리-}의 범주와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34.
- 허웅 (1975/1981),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 (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어제와 오늘』, 샘문화사.
- 황대화 (1986), 『동해안방언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서울: 한국문화사, 1993, 재출간].
- 황대화 (2007), 『황해도방언연구』, 한국문화사.